DEVELOPING COUNSELING MINISTRY: A GROWING NEED IN KOREA'S LOCAL CHURCHES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상담목회 발전 방안 연구

'약자의 목소리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회 상담소 운영 개선안'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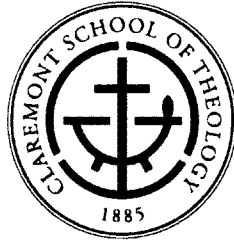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eong Hyun Yoo

April 2015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JEONG HYUN YOO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5

ABSTRACT

DEVELOPING COUNSELING MINISTRY: A GROWING NEED IN KOREA'S LOCAL CHURCHES

by

Jeong Hyun Yoo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centers in Korean churches. This improvement may provide Korean churches with better opportunities to serve their members and communities. However, I found that many Christians who received counseling from counseling centers in their churches had negative experiences and impressions of their sessions. I conducted interviews with counselors outside church centers who treated Christians who were disappointed with the counseling they had received in their churches. I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Christians who experienced difficulties and were disappointed in their church counseling centers; for that reason they changed to centers not connected with their churches. I also visited three mega churches that have their own counseling centers and several medium-to-small size churches.

From the interviews I identified three issues: First, the Christian counselees tend to be disappointed with confidentiality issues because their counselors do not keep their secrets. Second, many counselors in Korean churches fail to provide professional counseling in that they do not practice empathetic listening but quickly conclude that their clien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because of spiritual issues. Third, in many cases, Korean female Christians experience a patriarchal counseling environment and, from counseling sessions, it is not easy for them to recover their self-esteem that is already low

in the patriarchal social environment that is at the root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that deals with all kinds of discrimination, not exclusively the discrimination that is experienced by women.

KEYWORDS: Pastoral Counseling, Korean Church, Counseling Center in Korean Churches,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Interrelationship among Theology, Psych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Summary

I think that the counseling ministry is an important part of church ministry and supports modern ministry activities. Because of its important rol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oral counseling and other neighboring academic areas, such as theology and psychology. I analyze collected data from research interviews with church members who had counseling sessions in their church counseling centers and apply my findings to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church counseling centers.

In Chapter 1, I describe my motivation for this project. I found many church members had negative experiences with counseling sessions in their churches. As a result they tried a counseling service not connected with the church, or they moved to another church after the negative experience. Based on these findings, I present the problems and define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n Chapter 2, I describe the methods and process of collecting data and selecting research partners. I also explain the interview method that is used and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is project.

In Chapter 3, I describe histor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pastoral counseling, theology, and psycholog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among pastoral counseling, Christian counseling, and general counseling. I differentiate pastoral counseling from pastoral care and regard pastoral counseling as a more specifically dedicated area in contrast to pastoral care which deals with wider issues. I introduce the concept of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that is a ministry in which individuals are authorized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to deal with specific life issues of counselees in a limited timeframe. Based on interview results, I propose narrative therapy

and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as an alternative form of pastoral counseling for Korean churches.

In Chapter 4, based on research interviews, I categorize the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in church counseling centers: First, counselors must use listening and empathy; second, confidentiality must be respected; third, counseling people who already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counselors; fourth, telling own stories of counselees; fifth, constructing support communities; sixth, the role of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I also propose developmental plans for operating counseling centers in churches.

In Chapter 5, I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 three mega churches and several medium-to-small churches. This project will analyze the professional level of church counselors, their licenses and levels of supervision, the process of counseling, and management. I also make a suggestion for operating counseling centers in medium-to-small churches. My general suggestion is as follows; first, cooperation with the church counseling centers belong to and budget issues; second, the change in an understanding of the counseling ministry in the church; third, the importance of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as an alternative ministry.

Chapter 6 is the conclusion of this project and I summarize the research findings and my suggestions for the counseling ministry in Korean chu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것은 1997년 미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엔 1998년 6월 초순에 개봉 상영된 스릴러 영화의 제목이다. 내용은 그만두고서라도 본 연구를 위해 교회 내 상담소 경험을 한 사람들을 면담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이처럼 대신하여 잘 표현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내 전문성을 갖춘 상담소 중심의 목회상담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물론 모두가 선한 뜻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담소이지만 막상 교회 내 상담소 경험을 한 내담자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표면으로 떠오른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담임 목회자나 교회 내 상담사역자를 교회 예배시간이나 기타 모임에서 얼굴을 맞닥뜨린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매우 힘들어 한다는 점 등,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정작 교회 내 상담소를 이용하는 교인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호소하며 외부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거나 심지어 다니던 교회를 옮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나의 관심은 상담실을 갖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다수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교회 내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하는가?'이다.

A. 연구의 동기

헨리 나우웬(Henri J. Nouwen)이 그의 책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오늘의 세대의 특징이며 동시에 내일의 세대가 지니는 특징으로 "내향성, 아버지 상실, 강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1]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이며 비전이나 이상을 상실한 세대 속에서 목회사역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도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묵상하는 비평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 전인격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달해야 하고,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우웬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상은 섬김을 통한 리더십에 기초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고통의 과정을 겪으며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진정한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영권의 "한국 개신교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향후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개신교에 대한 선택의사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권은 "이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구조가 개인의 아픔과 필요를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서 이런 현상 속에서 교회 내 상담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점점 더해지는 것은 그 동안 채워지지 못한 요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한다.[2]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그 문제들은 속속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직장문제, 결혼문제, 자녀문제, 이혼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는 어쩔 수

---

[1] Henri Nouwen, *The Wounded Healer상처 입은 치유자,* trans. 최원준 (서울: 두란노, 2008), 41.

[2] 유영권, "한국목회상담의 실천과 교육에 관한 분석," in *신학논단* vol. 26 (1999), 1.

없는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치유와 해결을 필요로 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필요와 욕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목회상담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교회 내에는 예전 보다 교회 내에 상담소가 많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상담을 전공한 목회자들도 많아졌다. 정태기는 기독교 치유란 "부정적인 상태 또는 병적인 상태가 신앙적인 영향에 의해 긍정적인 상태 또는 건강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3]

교회는 찾아오는 이러한 교인들을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대하여야 한다. 나우웬은 환대(hospitality)가 치유의 원천임을 말한다.[4] 그리고 그 환대의 장소로 기독교 공동체를 말한다.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주어질 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인은 찾아와 아픔을 나누고 교회는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원천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5]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치유해줄 수 있어야 하겠다. 먼저 그들의 '문제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임과

---

[3]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6), 72.

[4] Henri Nouwen, 118-26.

[5] Henri Nouwen, 126.

동시에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듯 성도들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돌보아 주는 역할'의 한 방법으로서 교회의 상담적 역할을 들 수 있고, 이 상담적 역할을 감당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 내의 상담소이다.

교회 내의 상담소가 돌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면 과연 교회 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교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이 논문에서 교회 내 상담소에서 상담 경험을 한 바가 있고 현재는 외부의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교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생각 하고 있는 교회 내 상담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교회 내 상담소 운영의 현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안 마련으로 말미암아 현재 교회 내 상담소를 두고 상담목회를 행하고 있는 교회에는 좀 더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아직 교회 내에서 상담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에는 상담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과 의무감을 가지게 되길 원한다. 그리하여 교회 내에서 상담목회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폭 넓고 좋은 질의 상담사역을 제공할 수 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목회상담에 대한 교역자의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아울러 바람직한 교회 내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그리고 교회 내에 목회상담이론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목회상담 전문가를 유치 혹은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 특히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교육을 통하여 상담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양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풍성한 상담목회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동기이다.

B. 연구 목적과 방향성

본 연구는 현대의 교회가 성도들의 치유와 변화를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그것의 효과적인 한 방법으로서 교회 내 상담소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한다. 현재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 내 상담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교회 내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교회 세 곳을 비롯하여 몇몇 중·소형 교회를 탐방 조사하고, 교회 내 상담소를 경험한 교인으로 상담에 만족을 얻지 못하여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했거나 현재 상담을 진행 중인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근간으로 삼아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평가를 하였다.[6]

본 연구는 현재 한국 교회의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와 교회 내 상담소를 경험한 이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상담한 외부상담기관 전문상담가 등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고, 실제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교회와 상담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 내의 상담소가 상담 현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교회가 그 상담소를 통해서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치유와 회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교회 내 상담소에 상담전문인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그들을 통해 어떤

---

[6] 교회 내 상담소를 갖춘 대표적인 대형교회 3군데를 1차 방문하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선행 조사를 하였다.

치유와 돌봄이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혹은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봄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인적자원 양성과 확보나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서의 긍정적 질의 개선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표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면적 부분을 다소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교회 상담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대답을 통해 드러난 가장 비중이 큰 문제는 비밀보장이었다. 그와 동시에 담임 목회자나 상담 교역자와 상담을 한 후 그로 인한 교회 생활의 원하지 않던 불편함이었다. 결국은 교회를 옮기는 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거기서 얻은 새로운 가치관을 나눔과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 내에도 현존하는 가부장제성이다. 이는 사회와 가정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를 포함한 여성들 스스로 가진 인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교인이 고통을 안고 큰 고심 끝에 상담실을 찾아 갔는데, 정작 상담의 결론은 '자신이 참아야 하는,' 기존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가부장제적 힘에 의해 억눌러 두었던, 혹은 억눌려 있었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회복을 하지 못한 채 결국은 개인의 연약한 신앙문제로 귀결 지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소위 '믿음 없음'의 죄책감이 가중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이처럼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본 논문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가부장제적 구조에 의한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페미니즘에 근거한 목회상담 방법론을 제안한다. 여기서 페미니즘이라 함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강남순은 그의 책에서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차별의 극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차별들은 하나의 동일한 원리, 즉 우월한 것은 열등한 것을, 강자는 약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지배의 논리'(Logic of domination)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며 그는 자신의 입장을 '여성중심적 페미니스트'(gynocentric feminist)가 아닌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humanist feminist)라고 하였다.[7]

내가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은 강남순의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 기초를 둔다. 그 이유는 여성을 포함하여 남성중심 문화 속에서 오히려 여성 못지 않게 소외되고, 자신의 힘든 삶을 제대로 털어놓고 위로 받지 못하는 남성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약한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길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원하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하여 교회가 좀 더 깊고 넓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자들이나 앞으로 목회현장으로 나가게 될 예비 목회자들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상담적 역할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교인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청들에 관심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목회자들이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 내 상담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

[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7.

상담소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혹은 외부상담기관과의 연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상처입고, 소외되어 온 사람들을 상담이란 방법과 공간을 통해 돕는 사역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또한 기대한다. 그리하여 교회에서의 목회상담적 역할이 포괄적으로 증대되기를 원하며 아울러 교회의 질적 성장과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더욱 잘 수행해 나가게 되길 바란다.

C. 논문 개요

나는 상담이 현대의 목회 활동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목회상담에 대한 관련문헌과 이론 연구와 아울러 인접 학문과의 관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상담소의 운영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면담을 통해 살펴 본 교회 내 상담소 경험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교회 상담소 운영의 방향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서문과 연구를 하게 된 동기로서 교회 내 상담소의 부정적 경험과 기피현상으로서 외부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옮기는 현상 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이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와 본 연구의 목적 그리고 논문 개요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자료수집 과정과 방법,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선택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면담 방법으로서의 적극면담에 대한 설명과 본 연구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오는 연구의 제한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목회상담의 역사적 흐름과 아울러 목회상담과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서술과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 그리고 일반상담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목회적 돌봄과 목회상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상담을 목회돌봄과 구분하여 '좀 더 전문화된 영역'으로 보며 목회돌봄은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의 문제를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서는 목회상담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약속된 시간 안에서 특정한 삶과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검증된 사람이 관여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의 상호관계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연구 응답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놓고 그 대안적 방법으로 이야기 치유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하였으며, 페미니즘에 바탕을 둔 이야기 치유의 목회상담적 방법 등을 서술함으로 목회상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 드러난 교회 내 상담소 이용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몇몇 문제점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첫째, '들음'과 '공감,' 둘째, 상담의 비밀보장, 셋째, 아는 교인 상담하기, 넷째, 자신의 이야기 털어놓기, 다섯째, 지지(치유)공동체의 형성, 여섯째,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의 역할. 위와 같은 순으로 정리하고, 내용 속에서 앞으로의 교회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현재 교회 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교회 세 곳과 몇몇 중 · 소형교회의 방문 조사한 현황과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회에서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담 대상자와 교회 내 상담사역자의 전문성 그리고 자격증과

사례 지도, 상담의 과정, 운영 방식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중 . 소형 교회의 상담소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교회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 제안으로 첫째, 외적인 면에서 교회의 협력과 재정문제, 상담소 운영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과 교회에 대해 제안적으로 기술하였다.

Chapter II

연구방법

A.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표는 정보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험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주로 연구 주제를 경험한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상세하게 진술 받는 면담을 통해서 얻었다. 어빙 세이드먼(Irving Seidman)은 면담에 대해 사회적 현안을 반영하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8]나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상담경험에 주목하여 생생한 경험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경험의 중심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9]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한 다수의 개인들을 찾아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위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자료 추출에 대한 연구 전략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선택한 후, 면담을 실행하면서 자신들의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을 들었다. 그 속에서 현장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추출해 내었다. 면담으로 얻은 음성, 기록 정보들은 워드작업을 통하여 필사본과 면담상세기록을

---

[8] Irving Seidman,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trans. 박혜준 and 이승연 (서울: 학지사, 2009), 40-41.

[9]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연구 방법론*, trans. 조흥식, 정선욱 and 김진숙 (서울: 학지사, 2010), 187.

작성하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10]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각각 교회 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연구할 주제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로 선정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비교적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였다. 그리고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여 이러한 이들을 직접 상담한 전문상담자들을 아울러 택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과정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자기방어적인 태도에 대하여서는 주의와 경계를 하였다.

면담진행에 있어서 가능하면 대부분 구조화 시키지 않은 개방적인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여 경험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리하여 질문에 미리 어떤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상호순환적인 대담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교회 내 상담소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여러 경험을 가감 없이 생생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고든(Gorden)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면담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11] 그리고 면담에서 나누는 대화는 편견, 오해, 혹은 오도의 잠재적인 원천으로 얽혀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면담자가 적절하게 질문을 한다면 응답자는 바람직하고 올바른 정보를 내놓을 것 이라고

---

[10] Ibid., 171-74, 187.

[11] James A. Holstein and Jaber F. Gubrium, *The Active Interview: 적극 면담*, trans. 이명선, 손행미, 정운숙, and 이봉숙 (서울: 군자출판사, 2005), 3.

주장한다.[12]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문화 특성상 면담 대화를 지식 전달의 통로로만 다룰 가능성이 크다. 연구 결과 교회 내의 가부장제적 남성주의는 상담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면담 진행 방법으로서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과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였다. 이들은 심리학 이론이 여성들이 지닌 도덕적 경험에 대한 기술과 평가를 위계적, 개인적, 이성적, 즉 남성적 용어로 구조화했다고 주장한다.[13]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구조 아래 억눌린 상태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 속에 담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당연한 듯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다. 여성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통한 자기표현의 능력은 주로 권위적인 제도적, 관습적 관행에 의해서 조건화된다고 한 도로시 스미스(Dorothy Smith)의 주장을 참고하고 따르려 노력하였다.[14]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면담 과정에서 주제의 핵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나는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B. 연구 참여자 선택

연구 참여자 선택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개신교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교회 내 상담소에서 상담경험을 한 10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선택하였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교회 내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의 비중이 여전히

---

[12] Ibid., 3.

[13] Ibid., 26.

[14] Ibid., 27.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단, 남성들의 상담소 이용 빈도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안정된 종교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구조와 제도를 확고히 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인의 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주로 남성보조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남순은 지적한다.[15] 이는 교회 내 상담소를 찾는 이들도 대부분 여성들이며 그들은 교회 내의 이러한 가부장제적 구조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에서의 경험은 본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앙의 영역만을 다루거나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 권면으로 상담을 마친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상담을 통해 해결 받고자 하였던 문제에는 정작 접근조차 못하고 지금의 고통 위에 자신의 '믿음이 약한' 신앙적 죄책감만을 더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교회와 상담소의 구조에 있어서의 가부장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가진 가부장제적 구조에 대해 당연시 여기고 과거부터 학습되어 온 인식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강남순은 가부장제 구조라는 것은 오직 여성들의 협동이 있을 때만이 작동될 수 있으며, 이 협동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확고하게 된다고 한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사회의 강력한 가치기제인 가부장제적 권력과 제도에 의하여 지배 받게 되어 있으며,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더 나아가 남성을 악에 빠트리게 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여성혐오사상'을 스스로

---

[1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287.

각인시키게 된다. 교회 내 상담소를 찾는 여성 내담자 자체가 이러한 인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외부 상담기관에서 일정 기간 상담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문제 통찰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내담자를, 그리고 기독교 상담기관에서 5~10년 이상 상담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였다. 이는 제임스 홀스테인과 제이버 구브리엄(James A. Holstein and Jaber F. Gubrium)에 의하면, 대화가 서로에게 익숙한 사건, 경험, 혹은 인생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친밀도나 친교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화를 특정한 의미의 지평 혹은 이야기의 연결에 집중시킴으로써 응답자가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상담분야에서 몸 담아 오면서 그간 상담 혹은 관련 업무로 자주 그리고 오랜 기간 만나고 있는 이들과 업무상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는 서로 깊이 공감하고 우려해 오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중 그들이 털어놓은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부정적 경험들, 가령 상담에 관한 인식의 문제나 상담의 방법과 상담환경 등 개선해 나가야 할 내용을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면담자의 예비지식은 가끔 응답자의 환경, 행위, 그리고 감정을 밝히고 기술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자원이 되며, 표현되고 있는 공유된 경험은 종종 질문과 대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시물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한 것에 의지하였다.[16] 따라서 내가 근무하였던 상담기관에서 오랜 기간에

[16] James A. Holstein and Jaber F. Gubrium, 50.

걸쳐 함께 했던 동료들, 소위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상담가들과의 사이에 오갔던 대화 속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것 중의 하나가 내담자들의 교회에서의 부정적 상담경험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전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선택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과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그러한 유의 내담자들을 많이 상담을 하였던 이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홀스테인과 구브리엄은 그들의 책에서 연구 주제와 응답자의 경험에 관련되는 상황적인 예비지식은 면담자에게 필수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적극 면담자는 응답자들이 쉽게 동감할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그리고 해석적 상황, 또한 응답자의 경험이 전달될 용어에 익숙해야 한다고 했다. 예비지식의 활용은 응답자에게 그들의 사람과 경험에 관한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자의 설명을 얻어내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한다.[17] 그러므로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한 경험자로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문제에서 벗어남으로 자신의 상담과정을 충분히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경험을 수용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의도와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공감과 아울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조사를 하였다.

C. 적극 면담

최근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연구 모집단에서 여성을

---

[17] Ibid., 84-85.

배제시켜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나 타인들이라고 언급하는 바로 그 단어들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연구에서 목소리를 할당할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18] 더글러스(J. D. Douglas)는 창조적인 면담은 많은 면담 전략과 요령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우호적인 감정과 친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19]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응답자와의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과 그로 인한 친밀함 때문에 오히려 대화의 주제에 적극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담과정에서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부정적인 상담경험을 가진, 혹은 인식을 가졌던 이들 중에는 지금은 공부와 임상훈련을 통해 상담자가 된 경우가 있거니와 이러한 교회 내 상담소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한 이들을 초기에 상담하였던 상담자는 교회 내 상담소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미 서로 깊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증명된 사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간의 의도되고 고안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은 면담에서 응답자가 응답을 잘 간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간순간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면담 또한 응답자의 반응을 촉진시켜 준다. 또한 면담이 같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반응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된다.[20] 어떠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질문 제시는 관련성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

[18] Ibid., 27.

[19] J. D. Douglas, *Creative Interviewing* (Beverly Hills, CA: Sage, 1985); cited in James A. Holstein and Jaber F. Gubrium, 13.

[20] James A. Holstein and Jaber F. Gubrium, 43.

고, 또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활동이다.[21] 그래서 질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표준에 구애 받지 않고 연구에 응답자가 생산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존 W. 크래스웰(John W. Creswell)이 지적한 것처럼 면담과 관찰이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자 선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구의 표본 추출을 위한 두 원리, '적절성'과 '충분성'을 고려하였다. '적절성'이란 연구주제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함으로 충족되고, '충분성'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기술을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saturation)'에 도달하도록 수집함으로 충족된다는 이론을 따르려 노력하였다.[22]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교회 내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상담소의 실제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은 물론 나아가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돕는 사역으로써 목회상담의 방향성제시에 있다. 아울러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적 차원과 치유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의 당사자로서 교회 내 상담소와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향후 상담소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D. 연구의 제한성

본 연구에에서는 한국 교회가 교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를 경험한 사람

---

[21] Ibid., 45.

[22] John W. Creswell, 133.

들의 실제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상담하였던 상담가들을 통해 객관적이며 간접적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부족한 한국 교회 내 상담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향후 교회 내 상담소 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교회 내에서만 운영되는 상담소와 그 상담소를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전 면담을 통해 교회 내에 상담소가 개설된 교회들을 찾아 그 가운데 세 곳을 선정 방문하여 그 상담소 운영 현황을 알아보았다.[23] 그리고 1차적으로, 이러한 교회 내 상담소를 두고도 외부 상담기관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은 신중을 요하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담에 적절한 사람을 찾는 데에는 교회 밖의 상담기관의 추천과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전문상담자들에 의해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폭넓은 경험담을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논문과 단행본 등의 자료들을 통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수적으로 제한되었고 면담조사 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교회 내 상담소 운영의 현황과 본질을 모두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이미 교회 안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누락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알게 된 것은 교회에서 상담실을 운영할 유급상담자에 대한 필요성과 유료상담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구체화되지

[23] 방문을 한 교회 상담소측과의 비밀보장 약속대로 교회명은 A, B, C로 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2차 3차 방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않은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제도적, 윤리적, 행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으며 앞으로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교회의 상담사역의 활성화와 사회적으로 기독교상담의 보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각 교회 담임목사들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교회 내 상담소를 연구의 주제로 삼다 보니 거기서 나타나는 한계성은 특별히 교회 상담소 연합회라던가 이와 유사한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교단에서 교회 내의 상담소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청에 그러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가 찾아 다니며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힌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나 교회 내 상담소에 대한 현황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국내에서 교회 내 상담소 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논문이 없기 때문에 작은 출발이지만 좋은 열매로 거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사와 연구에 임하였다.

Chapter III

목회상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것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목회상담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이전의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전 세대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비교적 단순한 문제들이었고, 해결의 방법 역시 비교적 단순하였었다. 개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목회자의 상식적 돌봄으로도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문제의 다양성만큼이나 전문성을 지닌 돌봄에 대한 요청이 교회와 생활 현장에 필요하게 되었고, 목회상담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온 분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상담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목회상담과 목회적 돌봄에는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는 것인가 아울러 연관 학문간의 관계 속에서의 목회상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정의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목회사역에서의 목회상담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목회상담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덜고 좀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A. 목회상담의 흐름

목회사역의 범주 안에서 목회적 돌봄은 교회의 사역으로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오늘날의 목회상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목회상담이 오늘의 모습을 갖기까지는 많은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함과 동시에 이전의 시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며 발전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운동의 시작을 알린 안톤 보이센(Anton Boisen)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니 밀러-맥러모어(Bonnie J. Miller-Mclemore)에 의해 보이센이 주장하는 '살아있는 인간문서'시대에서 '살아있는 인간관계망'의 시대로의 변화, 그리고 최근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좀 더 다양해진 다양성의 시대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알아 보기로 한다.

목회상담학은 192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이룬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소위 '살아있는 인간문서'는 보이센에 의해 제안된 용어로 책이나 이론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간 경험 세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영적 종교적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보이센은 자신이 주변 동료 환자들의 회복과정을 관찰하면서 많은 종류의 정신병이 의학적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원인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의학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종교적, 철학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보이센의 의견에 동의한 리차드 캐봇(Richard Cabot)을 비롯한 의사들의 도움이 보이센의 새로운 시작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24]

살아있는 인간문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연구하는 일반학문, 그 중에서도 상담심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

[24] E. Brooks Holifield,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231-49.

이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사람을 돌보는 목회상담이라는 분야가 자연스레 발전되어왔다. 목회상담은 신학과 상담학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서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 치료에 중요한 도구들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목회상담학은 영성과 심리치료를 통합하는 정교한 치료체계로 자리잡으면서 정신건강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게 되었다.

보이센 이후 목회상담운동을 이끈 초창기 인물로는 스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 웨인 오우츠(Wayne Oate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힐트너는 목회신학을 고유한 방법론과 조직적 체계를 가진 신학의 주요 연구 분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비록 낱낱이 언급하진 못하였으나 여러 지역, 다른 교단과 신학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연구에 의해 목회상담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25]

살아있는 인간문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간 내면과 외부 환경의 연관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회돌봄과 목회상담 전문가들은 그 도구를 상담과 심리치료이론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칼 로저스(Carl R. Rogers)로부터 구했으며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심리치료와 가족치료 기법들을 사람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사역에 활용해 나갔다. 이러한 연유에서 현대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은 기독교 전통을 통해 내려오던 목회돌봄과 목회상담과는 그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2차

---

[25]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희망나눔, 2014), 16.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미국은 참전군인과 그 가족들이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과정이 목회상담 운동이 심리치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꽃 피운 목회상담은 1963년 미국목회상담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astoral Counselors)가 결성되었고, 4년 뒤엔 임상목회교육 기관들의 연합체인 미국임상목회교육협회(Association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이 두 기관은 현재까지 미국목회상담운동의 두 축이 되어 오고 있다.[26]

이러한 외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목회상담은 심리학이라는 타 학문의 정보와 지혜를 교회의 전통 그리고 신학과의 관계에서 꾸준한 대화를 해 오면서 이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미국목회상담협회에서 추구하는 '영성과 심리치료의 통합'을 이루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간문서의 시대를 통해 발전되어 온 목회상담운동의 역사는 바로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와 통합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목회상담자와 목회신학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기독교 신학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63년 미국목회상담협회(AAPC) 설립 당시 목회상담의 맥락에 대한 논쟁으로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을 중심으로 한 목회상담가들은 목회상담운동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반면에 힐트너(Seward Hiltner)와 오우츠(Wayne Oates) 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이들은 교회

[26]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18.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목회상담의 전문성과 독특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첨예한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양쪽의 견해 모두는 현대목회상담운동 발전에 나름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후 두 주장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 좁혀졌다. 기독교전통에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다양한 자원이 있고, 그것들은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잘 활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정보와 지혜를 얻은 현대 목회상담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지나치게 심리학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생겨났다.

현대목회상담운동은 전통적 의미의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전문적인 준비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사역으로 여겨져 왔던 목회상담은 현대목회상담운동을 거치면서 살아있는 인간문서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중요한 사역으로 인식되었다.[27] 목회상담 분야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문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기반으로 살아있는 인간문서를 연구하는 관점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일에 기여한 주요 인물로 앞서 언급한, 당시 미국목회상담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을 비롯하여 찰스 거킨(Charles Gerkin), 돈 브라우닝(Don Browing) 등이 있다. 소위 목회상담운동의 2세대라 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목회상담운동의 다변화에 기여한 다음 세대들이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세대들은 '살아있는 인간문서' 연구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 혁신적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인간을 복잡하게 얽힌

[27]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19.

사회구조 속에 상호 연결된 존재, 소위 '살아있는 인간관계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밀러-맥러모어(Bonnie J. Miller-Mclemore)이다. 그에 의하면 개인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연결된 사회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돌봄의 대상이 이제 '개인'에서 공동체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으로 확대되었다.[28] 이러한 관점은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이 한 개인을 향한 헌신에서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한 헌신으로 그 지평을 넓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인해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은 점차 힘의 불균형 문제, 성차별의 문제,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다루는 공공의 문제에 관여하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살아있는 인간관계망 관점에 따라 목회상담의 관점이 확대되고, 목회상담을 위한 대화의 대상자들도 나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살아있는 인간관계망의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주도하는 이들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학자들과 다문화 속에서의 목회상담/신학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미 언급한 보니 밀러-맥러모어(Bonnie J. Miller-Mclemore)와 크리스티 코자드 누거(Christie Cozad Neuger), 임마누엘 라티(Emmanuel Y. Larty)와 이경식(K. Samuel Lee)을 들 수 있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이 단순하게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들을 지지하는 것과 일부 특정 여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경험에 공감한다거나 성차별주의에 대항하고 여성에게 해악이 되는 환경과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거는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은 그 목적을

[28]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22.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포함하여 문화변형에 둘 때 비로소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이라고 한다. 그는 목회상담과 페미니즘의 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페미니즘에 기초한 목회상담은 개인들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결국은 그러한 점 때문에 목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위해 '지배와 권력'을 변형시킬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도록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한다.[29] 김필진은 여성을 위한 상담에서는 여성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상담을 받는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과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뿌리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화 작업이 수행되었을 때 여성 내담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30] 페미니스트 상담은 기존의 상담방법에서 범할 수 있는 잘못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페미니스트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을 보는 시각이 '정치적, 사회문화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여성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평을 개인의 정신 병리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연계하여 문제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다. 누거는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 아래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의 원인과 그것의 회복으로 여성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는 곧 여성들의 잠재적인 건강함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29] Christie Cozad Neuger, *The Arts of Ministry Feminist-Womanist Approaches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성을 위한 목회 사역*, trans.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144.

[30] 김필진, "여성의 전인치유를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in *목회상담*, vol. 8 (2006), 64.

한다.[31]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목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선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 내의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과제로 다가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학자들은 거시적 안목에서 폭넓은 페미니즘 운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발전적 연구와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동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목회상담운동을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상호문화적 패러다임으로 가나 출신의 목회신학자 임마누엘 라티(Emmanuel Y. Lartey)가 주장한 것으로 라티는 *상호문화목회상담*에서 가나의 문화전통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임상을 한 자신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다.[32] 라티는 상호문화적 패러다임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때 타인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 문화적인 것, 개별적인 것의 교차점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교차점에는 '다양한 사람들, 집단들, 관점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33]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화 시대 세계의 모습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목회상담운동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혹은 혼란스런 모습으로 상호작용할 때 지금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

[31]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trans.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119.

[32] Emmanuel Yartekwei Lartey, *In Living Color: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상호문화 목회상담*, trans. 문희경 (서울: 대서, 2011), 40.

[33] Emmanuel Yartekwei Lartey, 40.

패러다임의 목회상담은 혼란스러움을 무질서와 파괴의 전조가 아닌 다양한 상호교류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급속한 글로벌 산업화와 다문화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목회상담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호문화적 패러다임이 시사해주는 바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회상담학자들은 일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의 차이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 했다기보다 이 두 가지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신학자의 눈에는 목회상담학자들이 사용하는 심리학적인 정보가 신학을 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상담사역의 현장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진정으로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결코 관념 속에만 머물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B. 목회상담과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목회상담자는 신학교육을 최소한 3년 이상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담의 과정 중에 내담자의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것은 아니나 먼저 신학적 관점에 발을 딛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해석함과 동시에 심리학적 렌즈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때 좀 더 깊고 넓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상담자는 나아가서 내담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회복과 아울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분야의

상담에서는 어려운 영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오성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목회상담자는 일반상담자들과 같이 인간의 정서장애, 성격장애, 인간완성, 행동수정 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결함을 도우려고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목회상담자는 더 나아가서 능력과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회복시키려 한다. 폴 틸리히의 용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면, 목회상담자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하는 자요,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돌보는 자이다.[34]

목회상담은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나간다는 점이 일반상담과 분명히 구분된다. 오성춘은 상담관계 속에 양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삼자대화란 점에서 일반상담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성춘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소망, 생명, 사죄, 믿음, 축복 등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때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참여적 제3자로서 하나님을 그 대화에 초청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한다.[35] 그리고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진정한 인간회복이 있다고 믿고 상담할 때 그것이 목회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36] 이러한 인식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삼자대화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고 양자 모두 상담의 진행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다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상담과 뚜렷이 구분되는

---

[34]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74.

[35] 오성춘, 281.

[36] 오성춘, 282.

부분이다.

신학과 심리학 사이에서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태도는 성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태기는 심리학이나 신학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진리를 내포한다고 해도 진리 판단의 기준점은 성서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37]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학문의 영역에 대해 지나친 체면이나 긍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학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보아야 하며, 신학은 심리학을 비롯하여 인접 학문을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38]

C.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 그리고 일반상담의 관계

이 세 영역 중에서 특히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 짓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유영권도 그의 책 *기독(목회)상담학-영역 및 증상별 접근*에서 기독(목회)상담의 영역을 달리 구분 짓지 않고 있다.[39] 오성춘도 두 분야에 대해 뚜렷한 경계선을 두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목회상담이 반드시 목사나 전도사의 독특한 봉사 영역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없다. 목회보다도 목회상담은 봉사자의 범위로 보면 더 포괄적이다. 목회는 그 의미하는 바대로 목사나 전도사에게 국한되는 감이 있으나 목회상담은 목사나 전도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교역의 분야이다. 목회상담은 훈련받은 사람이면 교역자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봉사이다.[40]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제사장론에 의해 소위 평신도들의 의미가 매우 커졌고 그로

---

[37]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200.

[38] Ibid., 200-01.

[39] 유영권, *기독(목회)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25.

[40] 오성춘, 364.

인해 현대 교회 내에서도 그 사역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캐리 도링(Carrie Doehring)은 비록 모든 목회적 돌봄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와 신앙공동체에서 그들이 행하는 돌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41]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목회상담은 신학교육과 아울러 목사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담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신학교육을 받고 더불어 상담교육과 훈련을 받은 평신도를 교회에서 파송하는 절차를 통해 목회상담자로 사역을 하도록 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구역장, 목장,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평신도 사역자들처럼 일정기간 신학교육과 전문상담교육을 이수한 평신도들을 교회에서 파송의 형태를 갖추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오성춘은 교회공동체는 목회상담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목회상담자를 선택하고 훈련시켜, 목회상담을 위임하고, 그 과정을 감독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즉 목회상담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지도하에 상담한다.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교회라는 맥락에서 상담하는 자이다. 교회의 맥락을 떠나서 목회상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상담자를 지원하며, 격려하며 지도하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며, 돕는 목회상담의 진정한 자원이 된다.[42]

목회상담은 결국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

[41] Carrie Doehring,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 Postmodern Approach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 근대적 접근법*, trans. 오오현 and 정호영 (서울: 학지사, 2012), 25.

[42] 오성춘, 379.

두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교인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하여 교회 내에서 의미 있는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일반상담과 뚜렷이 구분이 되며, 그 역사적인 뿌리를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상담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요소이다.

D. 목회적 돌봄과 목회상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목회돌봄은 근래 경험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품고 있다. 찰스 V. 거킨(Charles V. Gerkin)은 목회돌봄을 행했던 최초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인도자들로 제사장들은 세습적 계층으로 예배와 의례를 담당했고 예언자들은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정치적 인도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였으며, 또 현자들은 선한 삶과 개인적인 처신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43] 그리고 구약시대에 목회돌봄을 수행한 주역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던 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한다.[44]

이후 여러 시대를 거쳐 급진적 변화를 맞은 때가 개신교 개혁의 시기로 교회의 목회적 돌봄은 점점 개인화 되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은

---

[43] Charles V. Gerkin,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의 개론*, trans. 유영권 (서울: 은성출판사, 2004), 28.

[44] Charles V. Gerkin, 29.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에 근간을 두고 있던 목회상담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화된 사역으로 차별화되면서 두 분야는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목회상담은 여전히 목회돌봄의 한 부분이며, 목회상담의 지혜는 목회돌봄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임상목회교육에서 훈련받은 목회돌봄 전문가들이 심층심리학과 심리치료 이론을 신학교에 소개하면서 그 영역과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다만 최근에 목회상담이 자신의 특화된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원래 가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을 구분하는 경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45]

안톤 T. 보이센(Anton T. Boisen)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회적 돌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의 인물로 자신의 정신적 질병과의 싸움에서 심오한 종교적인 경험을 했으며, 종교적 회심과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고통만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그는 교회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앞으로 자신은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병적인 질병의 돌봄과 목회신학 교육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을 경험하는 것은 유대-기독교 전통의 역사서에서 얻는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의 바탕이 된다고 했다.[46]

---

[45] 한국목회상담학회, 13.

[46] Charles V. Gerkin, 16.

거킨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목회적 돌봄이 정신병리학과 상담에 몰두하면서, 목회상담 분야는 더욱 전문화되었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으로 목회상담에 역점을 둔 것은 중요하나 단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발달을 돌보는 데에 관심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목회상담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돌봄의 환경에 의한 양육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47] 그러므로 목회적 돌봄에서 목회상담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달시키도록 돌봄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변화하는 일상을 통해 돌보는 일들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거킨은 그가 추구하는 목회적 돌봄의 지향하는 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적 돌봄의 실제를 거의 지배했던 심리치료적인 상담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에서 현재 목회활동의 오랜 전통들을 배경 삼아 이 전통에 의지하고서 이전 시대의 목회적 돌봄의 발달을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심리치료적 시대도 포함함으로써 목회전통의 강점들을 종합하여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48]

목회적 돌봄은 포괄적 개념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목회자나 신앙공동체가 제공하는 치유(Healing), 지지(sustaining), 안내(guiding), 화해(reconciling)를 핵심 기능으로 여겨 왔다. 현대 다양화의 시대에 있어서 목회적

[47] Ibid., 126.

[48] Ibid., 138.

돌봄은 과거의 역사에 기초하면서도 현재의 엄청난 시대적,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중심 주제이다. 예를 들어 에이즈, 에볼라 같은 새로운 질병과 약물중독, 다양화되는 아동폭력, 배우자 학대, 노인 학대 등의 일탈행위들을 다루는데 까지 목회적 돌봄의 영역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목회적 돌봄과 목회상담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식과 틀의 필요성이 더해간다.

페미니즘의 대두와 함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기능은 개인을 돌보는 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민감한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밀러-맥러모어는 위 네 가지 전통적 기능을 확대하여 저항(resistance), 힘 실어주기(empowering), 양육(nurturing), 해방(liberating)의 네 가지 기증을 제안한다.[49] '저항'은 특정 집단의 희생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잘못된 사회구조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사역을 말한다. 전통적인 치유는 개인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문제의 극복을 통한 성장에 역점을 둔다. 하지만 가령, 개인을 억누르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내면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성장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힘 실어주기'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 속에서 존엄성과 목소리와 힘을 빼앗긴 소외 계층과 상처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을 변호하고 돌보며, 그들에게 성장의 수단과 자원을 공급하는 사역을 말한다.

---

[49] Bonnie J.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in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eds., Bonnie J. Miller-McLemore and Brita L. Gill-Auster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80.

'양육'은 상처받기 쉬운 이들과 연대를 통해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말하고, '해방'은 정의롭지 못하며, 원하지 않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으로서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을 말한다.

E. 이야기 치유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상담이 어려운 점이 비밀유지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설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의해 교회 내에서는 상담이 아예 어려운 경우이다. 소위 선포와 가르침이 중심인 교회이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 Clinebell)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목사는 자연스러운 상담자가 된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미 교인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도 접촉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언제나 찾아와 보살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50] 이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태기는 목회자가 인간을 돌본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바로 이 일에 인간들의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부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플 때 가장 쉽게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

[50]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현대목회상담*, trans. 박근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111.

들어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51]즉, 가르치는 교회에서 들어주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클라인벨은 만일 교회 목회자의 도움으로 무거운 상실감과 죄책감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불필요한 고통과 전인 건강의 약화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목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52]

가르치는 목회에서 듣는 목회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면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것은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다. 찰스 거킨(Charles V. Gerkin)은 이야기가 인간 삶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들을 이야기나 글을 통해 진술한 것이며, 인간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구성해가면서 사는 존재이자,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했다. 또한, 자아형성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야기라고 말했다.[53]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 자신의 삶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그 이야기의 해석을 통해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를 찾음과 동시에 의미 없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서 '의미 없는 것'들은 바로 소위 말하는 여성들의 해결하지 못한 응어리, 억울하고 원통함이 고여 있는 '한'의 자리라고 하겠다. 의미 없는

---

[51] 정태기, "아픔과 목회상담," in *기독교사상* vol. 303 (1983), 110.

[52]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trans, 박근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87), 334.

[53] Charles V. Gerkin, *Widening the Horizons: Pastoral Response to a Fragmented Socie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52.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채 이루지 못한 삶을 이야기를 통해 완성해 가며, 그러는 중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찾고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깊이 억눌러 놓았던, 억눌렸던 이야기들을 비로소 속 시원히 털어 놓는 과정에서 이야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자와 공동체 속에서 여성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이야기 털어놓기는 여성이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경험 자체를 새롭게 보게 해준다. 여성들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성 자신의 현재의 삶을 넘어서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게 되고, 삶의 의미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54] 개인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란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 즉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누거는 상담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안전감의 제공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간의 익숙하게 지니고 살던 위기대처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새로운 불안에 대해서는 그에 준한 방어전략을 만들기도 한다. 누거는 칼 로저스가 강조했던 상담자의 어떤 특성, 즉 따뜻함을 담은 언행, 수용적 태도와 적절한 자기노출 그리고 경청을 필수사항으로 말한다. 이것은 모두

---

[54] 고미영, "여성들의 이야기: 그 실체와 가능성," in *기독교사상* vol. 445 (1996), 149-50.

상담과정에서 변화를 위한 안전감이라는 상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거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는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직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것과 비슷하다. 초기 상담과정에서는 어려우나 상담을 통해 대안적 이야기가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그만의 가치체계 즉 그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우정, 일이나 명성 등이 손상을 입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과 자기 이미지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내담자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담자 고유의 삶과 형성되어 온 관계와 문화 속에서 그를 양육하며 힘을 불어넣고 그에게 필요 적절한 안전감과 희망, 에너지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55]

1. 이야기 치유정의[56]

이야기 치유는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상담이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엡스턴(David Epston)에 의해 1990년대 초에 나타난 가족상담의 한 분야이다. 이야기(Narrative)란 스토리(Story)에 담화 혹은 담론(discourse)을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론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인 동시에

[55]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85-89.

[56] Narrative Therapy를 지칭할 때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일반적 통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신과)의료계에서의 치료 개념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역사와 삶에 영향을 끼치는 폭넓은 사회적 맥락과 치유의 윤리, 그리고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독특한 접근으로 평가되는 심리치유 작업방식이다.[57] 이야기 치유는 정통 상담과는 다른 점이, 먼저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치유는 해체화법과 재구성화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담자의 문제는 상담가의 개입으로 최소화하고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 자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담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상담의 초점을 내담자의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힘을 갖도록 돕는 것에 두는 것이다.[58] 즉 이야기 치유적 접근법에 의한 상담은 억압받는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활용 가치가 높은 방법이다.

교회 내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이며 교리 중심적인 환경에서는 피해 계층에 속해 있던 여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억압 받고 소외 된 입장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된다. 여성을 둘러싼 외부적인 억압들을 이야기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체하고 내면에 존재해 있던 자신의 힘에 눈을 뜨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누거는 여성이 기존의 문제 이야기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

---

[57] 이선혜, "내러티브 접근의 가족치료사적 의의와 한국 가족치료 발전에 대한 함의: 고 마이클 화이트의 작업에 대한 재조명," in *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 16 (2008), 45.

[58]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79.

감으로써 새로운 해석과 결론을 만들게 하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핵심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적이며 부정적인 이야기에 맞서고자 하는 페미니즘적 대항 이야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대항 이야기는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기존의 지배적 이야기보다 진실 된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에 맞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역적 이야기가 되며 아울러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배적 이야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 할 수 있게 하는 면에서 도덕적 이야기라고 한다.[59] 그러나 여성이 상담을 통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문제를 스스로로부터 분리해 내고 새롭고 건강한 이야기로 재구조화해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없다면 현재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이야기들을 해체해 나가려는 의도는 매우 불안한 시도가 될 것이다. 심한 외부의 환경에 의한 불안감 속에서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작업은 어렵다. 그러므로 여성이 새로운 이야기를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부여하여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과 아울러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를 끊임없이 지지 해주는 공동체가 매우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이야기 치유의 역사적 흐름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은 제1, 2차 세계대전이다. 전후 인간의 이성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또한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

[59] Ibid., 211.

함께 모더니즘이 말하는 과학적, 정치적, 종교적 진리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상담과 심리치료 이론에 도입되면서 이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자연이나 인간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회화과정의 산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소위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가 나타나게 된다.[60] 이 사회구성주의는 기존 지식의 객관적 기반에 대해 도전하며 지식과 의미는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공유된 가설에 의해 구성됨을 주장한다. 이 사고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이 자신과 다른 이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언어의 상호작용이나 말하는 습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61]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 치유는 인간은 고유하면서도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단지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거나 부분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62] 이야기 치유는 치유에 있어서 외부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의 내부적이며 주관적인 지식에 비중을 두고 거기서 큰 가치를 발견해 내는 일에

---

[60] 박민서 and 오우성, *이야기 상담의 과정과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6.

[61] Sheila McNamee and Kenneth J. Gergen, eds.,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trans. 김유숙 (서울: 학지사, 2004), 12-13; cited in 안순옥, "중년여성우울증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이야기치료를 중심으로" (Ph.D dis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110-11.

[62] Michael White, "The Narrative Metaphor in Family Therapy: An Interview with Michael White," in *Family Therapy: Exploring the Field's Past, Present & Possible Futures*, ed., D. Denborough (Adelaide, South Australia: Dulwich Centre Publications. 2001), 245.

주력하게 된다.[63] 이는 내담자가 이야기 속에 담긴 문제를 내담자 자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담자와 문제를 분리하여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문제가 문제'란 상담적 접근을 하게 된다.

3. 페미니스트 목회상담과 이야기 치유-누거 중심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 있어서 누거는 두 가지 자원을 이야기 한다. 먼저 전통적 목회상담이라는 자원이다. 누거에 의하면 목회상담은 목회돌봄과 달리 보다 전문화된 영역의 상담으로 목회돌봄이 보다 큰 영역의 문제를 돌봄의 관점에서 관여하는 것이라면, 목회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제한된 시간을 전제로 특정한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인증 받은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이상의 일반적인 전제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일반 목회상담이 일반 목회와는 거리가 있는 심리학에서 필요한 통찰을 구하는가 하면 중요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 신학적 단절과 개인주의 혹은 사생활 중심주의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누거가 전통목회상담의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을 시도한 것은 목회상담이 신학적 전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누거는 목회상담의 신학적 전통이 많은 부분 해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 유용한 자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거는 상담관계의 기초, 신학적 메타포의 사용, 하나님의 사랑과 힘에 대한 믿음은 전통 목회상담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서도 상담의

[63] 고미영, "이야기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in *한국가족치료학회* vol. 8 (2002), 112.

과정 순간순간마다 주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이해한다.[64] 그러면서 누거는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 대해 비판하기를,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등을 합리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소위 전통적 신앙공동체와 성서의 역사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으며 여성을 죄와 욕정의 상징처럼 표현하였으며, 또한 여성들에게는 일방적인 자기희생과 절대적인 복종과 인내와 헌신 등을 통한 사랑의 완성과 같은 불가능한 짐을 지움으로써 여성들에게 그러한 이상적인 성향을 추구하도록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적 기반을 가진 전통적인 목회상담은 여성들의 진정한 내면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럼으로 인해 온전한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65] 그리고 누거는 기존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도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적인 기반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이런 유의 연구들은 오히려 여성의 경험 해석과 치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에 여성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그들의 삶과 현실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심리학적, 신학적, 그리고 임상적인 목회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누거는 여성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 상담과정에 내담자와 상담자가 여성의 삶의 경험과 관계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해악의 뿌리가 되는 가부장주의의 변형과 이해 그리고 재규정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하는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을 위한 가장 적절한 상담방법으로 이야기 치유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누거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동안 무시되거나 간과되었던

---

[64]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희망나눔, 2014), 419.
[65] 한국목회상담학회, 420.

이야기나 미처 이야기화 되지 못한 경험을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됨으로 인해 페미니즘과 이야기 치유는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66] 1960~7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문제와 페미니즘적 사고가 고조되면서 여성의 의미는 상호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한 연대가 기존의 해석 방법을 탈피하고 여성중심적 해석과 아울러 페미니즘이 발전하게 되었다.[67] 1980년대 후반 화이트는 이야기(narrative) 은유와 이러한 페미니즘(Feminism)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늘의 이야기 치유의 원형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누거에게 있어서 이야기치유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상담이론보다 페미니즘적이고 여성해방적인 것으로, 여성의 문제에서 문화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여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상담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누거는 여성에게 비로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 치유 이론은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의 현장과 그 실천이 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성 해방과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사역에 매우 적합한 이론으로 보았다.[68] 이런 면에서 이야기 치유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은 동일하게 내담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내담자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을 내담자가

[66] Shona Russell and Maggie Carey, *Narrative Therapy: Responding to Your Questions 이야기 치료: 궁금증의 문을 열다*, trans. 최민수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199.

[67] Shona Russell and Maggie Carey, 198.

[68]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8.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 요인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경험과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치유 과정에서 중요시 되어야 한다. 누거는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이란 상담을 통해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여성의 외침과 경험에 함께 하는 것 혹은 성차별을 하지 않는 것, 여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문화에 대한 단순한 관심도 아닌 그 목적을 개인 변화가 아니라 상담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당연히 교회를 포함하여 문화변혁에 둘 때만이 페미니즘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69]

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목회상담은 개인의 문제와 이익에 관심을 둠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문화 변혁에 헌신하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즉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은 자신의 삶에서 자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즉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 개인의 변화는 완전해 질 수 없다는 것이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의 주장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단지 자신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와 사회적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많은 여성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은 문제의 원인을 당연히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혐오와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69] Christie Cozad Neuger, "Pastoral Counseling as an Art of Personal Political Activism," in *The Arts of Ministry: Feminist-Womanist Approaches*, ed., Christie Neug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93.

그러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며 현재의 고통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인의 내적인 원인과 아울러 사회적인 원인으로 분리해 보고 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이 우월하다거나 남성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가부장제 신화에서 벗어나서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 보고 대할 줄 아는 의식을 여성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상담은 보편적인 목표를 심리상담 분야의 일반적인 목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내담자 개인의 증상을 분리하여 제거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딪혀 오는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상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열거한 여러 현실적인 목표도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결국은 사회변화를 향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개인의 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힘을 기반으로 개인의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와 그를 통하여 사회구조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개인의 변화는 그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희성은 페미니스트 목회신학은 한국 교회가 전통 교리의 옹호처가 되기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녀, 노소, 소수자 모두의 경험에 구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자원뿐만 아니라 타학문 영역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해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70] 페미니스트 상담자는 사회참여를 통해 법의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사회제도가 변화되면 내담자들을 지지하는 상담자의 상담과정도 더불어 점차 힘을 얻게 된다.

사회가 남성중심주의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법률, 심지어 학문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남성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여성과 관련된 것은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인 것, 심지어 병리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통념은 가령, 가정폭력인 경우 여성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맞을 짓을 했다'거나 '여성이 폭력을 유발했다'는 말로 모든 정황이 여성의 탓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여성은 피해 의식 위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하여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구조적 모순을 가진 사회에서는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상담을 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결된 수는 없다. 최근 페미니스트 상담자들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학대와 그로 인한 증세 등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여성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는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다. 페미니스트 상담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내담자들의 심리적으로 내면화되고 당연시 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 올바른 눈으로 보게 하고, 페미니즘적 가치관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줌과

[70] 정희성, "교회성장과 여성주의 목회상담," in *목회와 상담* vol. 6 (2005), 194.

동시에 이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교회 내 상담소 경험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내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지만 페미니스트 상담으로 진행된 경우가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외부 상담소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담자인 여성 자신이 예전에 비해 교회/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운명처럼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교회 내 상담소의 상담자는 누구보다 페미니즘적 가치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이야기치유의 목회상담적 방법

면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사안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주의이다. 여성을 위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은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사회라는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가부장적 환경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여성이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에 존재하며 해악을 끼치는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당연시 여기며 지내왔던 여성들의 삶 속에 내재하는 지배적인 문화의 해악에 대해 변형을 꾀하고,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들춰내어 명문화하여 새로이 규정짓는 일은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 중 이야기 치유에서는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담자와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 둘째, 내담자의 비관적인 삶이 담긴 이야기 해체하기, 셋째, 내담자의 잠재한 능력과 원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주기 등이다.

누거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의 시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문제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문제들을 다양한 문화적 렌즈를 통하여 보게 하고 실제 문제들을 더 잘 비추어주기 위해 적절한 해체적 틀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명료화 하는 과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내담자의 삶과 세상 속에서 억압하는 세력들에 대해 항거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71] 이러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서 그 과정 중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바, 이는 삶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내담자 혼자서 상담과정 중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문제를 확인하는 가운데 드러난 잘못 된 정보들과 거짓들을 진실에 비추어 보고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 저항해 가며 자신의 삶을 새로이 선택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누거는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72]

[71]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272.

[72] Ibid., 272-73.

Chapter IV

교회 내 상담목회 방법론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자료 분석결과 드러난 교회 내 상담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약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자신과 가족, 혹은 직장 사회 등 삶의 현장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지(치유)공동체 형성이 그것이다. 누거는 여성들에게 정의와 힘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는 '안전한 장소,''광범위한 공동체 추구,''저항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한다.[73] '안전한 장소'는 모든 상담의 시작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공동체는 내담자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온 거짓 진리와 상담 이후 떠오른 새로운 생각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내담자 스스로는 저항은 물론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오는 강압적 전략들을 공동체가 연대하여 지지해 줌으로써 대항 문화적 시각으로 어렵사리 얻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광범위한 공동체 추구'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반화에 대항할 수 있는 문화상호적 관계와 연대를 이루어내기 위한 동일성의 차원을 인정하는 문화내부적 관계를 함께 추구하는 광범위한 공동체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73] Ibid., 350-57.

'저항'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개인적이고도 문화적인 이야기를 명료화하고,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전략이 되어주는 저항 이야기를 개발하고 강화하여 실제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A. 들음과 공감

〈연구참여자 1〉

개인적인 바람이겠지만 내 친형제 친자매에게 하듯 깊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다시 말하자면 내 이야기를... 더 깊은 이야기를 내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 관계가 아쉬웠어요. (교회에) 상담은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신앙상담에 머물곤 하니까 그게 늘 아쉬웠어요. (상담은 했으나) 늘 한 구석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개로 지금의 상담기관을 알게 되었지요. 현재 상담 진행 중인데 뭐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내놓을 만큼 (상담에서) 해결된 건 없어요. 앞으로 더 상담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일단 교회에서 하던 것(상담)보다는 낫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경험인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경청이다.[74] 내가 만난 한 교인의 호소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설교나 성경공부, 구역모임, 금요일 철야예배 등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을 할 만한, 즉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환경은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영어의 'hear'와'Listen'은 듣는다는 의미의 두 단어 중에서 전자는 듣는 이의 의도에서의 의미이고, 후자는 말하는 이의 의도대로 듣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담에서는 '말하고 싶은 이의 의도대로

---

[74] Richard Parsons, "The Counseling Relationship," in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eds., Robert Wicks, Richard Parsons, and Donald Capps (N.Y.: Paulist Press, 1984), 108; cited in 정희성, "교회성장과 여성주의 목회상담," in *목회와 상담* vol.6 (2005), 203-04.

들어주는(listen to) 것이 되겠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 목양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인도(guiding)가 오늘날 목회상담에 해당되며, 인도의 기능 중에서도 '들음(listening)'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중요시한다.[75] 먼저 상담자가 말하기보다 들음으로 내담자 말의 내용을 명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자가 들어줌으로써 내담자의 내적인 부담을 순환시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들어줌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반추하여 자기이해에 도달하게 해준다.[76] 여기서의 들음의 효과는 의미의 명료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감, 반성을 통한 자기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정의가 없고 결코 원하지 않는 고통을 주는 현실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과 사랑을 하신 우리들이 자신의 온전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말한다.

〈연구참여자 3〉

가족 관계, 가까이는 부부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위 나 자신의 정체성, 자아를 찾고 회복하고 싶었지요. 교회에서 하는 상담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교회 분위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하려고 보니 내가 말을 할 만한 곳,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딱히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만 더 해 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소를 찾아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이기춘은 여전히 우리교회는 '들음의 목회'보다 '말함의 목회'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들음'과 '말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성숙한 징표가 나타난다고 한다.

---

[75]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인도(guiding), 화해(reconciliation).

[76] William Clebsch and Chales Jae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53-54.

즉 선포의 설교와 들음의 상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77] 선포하는 강단 목회에서 교회가 성도의 이야기를 듣는 들음의 목회로 관심을 더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손운산은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78]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인간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얽매여 왔던 어떤 사건에서 자유로움을 얻는다고 한다.[79] 하나의 사건이 이야기 될 때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것임을 알고 과거를 비로소 수용하게 되며 안고 어루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야기하는 자는 이야기의 주인 혹은 저자가 되며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되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게 하여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게 된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Origen of Alexandria)도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 어려운 일들을 털어놓는 것이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오리겐은 먼저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학식 있고 자비한 의사(목회자)에게 응어리진 죄를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다.[80] 결국 정서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이 역할은 목회상담자의 몫이다.

---

[77] 이기춘, *들음의 신학: 상담신학의 이론과 실천* (서울: 감신, 2002), 399.

[78] 손운산, "전쟁 이야기에서 치유와 화해의 이야기로," in *기독교사상*, vol. 498 (2000), 27.

[79] 손운산, "상처 입은 한반도적 자아치유를 위한 상담목회(2)," in *기독교사상* vol. 470 (1998), 73.

[80] R. C. Mortimer, *The Origins of Private Penance in the Western Church* (Oxford: Clarenden Press, 1939), 29.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öffer)는 들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많은 사람들이 들어 줄 귀를 찾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할 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 줄 귀를 찾지 못한다. 자기 형제(또는 자매)들에게 경청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인내로서 들을 수 없는 자는 지금 요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지껄이고 있으며 타인들에게 결코 진정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81]

즉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거킨(Chares Gerkin)은 *살아 있는 인간문서*에서 목회상담자란 우선적으로 이야기의 청취자요, 이야기의 해석자라고 주장한다. 신자들이 왜 목회상담자를 찾겠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82] 그렇다고 단순히 '들음'만이 목회상담의 전부는 아니다.

도링(Carrie Doehring)은 목회적 돌봄 관계의 기본 요소 중 첫 번째 요소로 돌봄 사역자가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당성을 찾아주는 일을 감당하는 단계로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83] 도링은 훌륭한 경청의 개념으로 공감과 관계적 경계선을 말한다. 공감은 목회적 돌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돌봄의 관계에서 돌봄 사역자 자신과 수혜자 양쪽 모두의 내부에서 어떠한

---

[81]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117.

[82] Chares Gerkin, *Living Human Documents 살아있는 인간 문서*, trans. 안석모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259.

[83] Carrie Doehring,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 Postmodern Approach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 근대적 접근법*, 39.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양태의 공감은 동시에 일어나며 정반대의 상관관계에 있는 두 가지 기술, 즉 상대방이 되어보는 경험을 통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각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공감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행위이다.[84] 그는 공감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변형적인 경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공감적 능력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나의 정보가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85]

도링은 목회적 돌봄 관계의 기본 요소 중 두 번째 요소로 힘을 이야기 한다. 힘은 관계적 역동성과 맞물려 작용한다. 돌봄관계에서 분리되거나 통합되어 버리는 극단적인 예를 설명할 때 우리는 반드시 힘의 역동성, 그리고 힘의 차이가 어떻게 힘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86] 도링에게 있어서 힘의 논리는 상대방이 되어보는 경험, 즉 융합과 자신을 자각하는 분리의 관계와 비슷하게 보았다. 도링은 힘의 논리를 힘에 제압당함, 역량강화, 제압함의 순으로 생각했다. 제압당함은 자신의 경험을 빌어 자신을 공격한 가해자는 이미 다른 이의 힘에 의해 제압 당한 경험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는 트라우마 이후 스스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떠난 여행 경험을 예를

[84] Ibid., 44-45.

[85] Carrie Doehring, *Taking Care: Monitoring Power Dynamics and Relational Boundaries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14.

[86] Carrie Doehring,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 Postmodern Approach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 근대적 접근법, 49.*

들면서 출발할 때는 공포의 힘에 제압 당하는 느낌을 가졌으나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공포의 힘을 제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역량강화는 모든 이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어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경험이다.[87] 여기서 도링은 이런 관계적 경계선, 힘의 논리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재해석해내고, 앞으로의 새로운 관계에서 힘과 관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공감적인 삶, 역량을 강화하는 삶을 지향하는 지혜라고 본다. 이러한 공감적, 역량강화의 삶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관계적 경계선을 유지하고 계발하고 살아가는 것과 자신의 힘을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은 신앙적 실천과제이다.[88]

도링의 목회적 돌봄 관계의 기본 요소 중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도링은 자신의 경험에서 관계적 경계선과 힘의 논리를 체화하는 과정을 신학적 주제로 엮어낼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현재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고백한다.[89] 이러한 관계적 방식과 힘의 논리는 자신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같이 적용되기를 도링은 원한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내가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가 나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감적인 기독교

[87] Carrie Doehring, *Taking Care: Monitoring Power Dynamics and Relational Boundaries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7.
[88] Ibid., 18.
[89] Ibid., 13.

공동체가 되기를 그는 소망한다.[90]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내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미해결 과제로 안고 살아가다가 원하지 않게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안타까운 사람들, 더욱이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 자녀에게 사랑 아닌 아픔을 물려주는 악순환의 관계가 아닌 가슴 펴고 숨을 쉴 수 있고, 성장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의 교회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좀 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처럼 스스로의 노력이나 부모 또는 목회자의 상식적 돌봄 만으로는 단순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교회 내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의 전문적 상담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교회와 담임목회자에게는 상담목회가 교회를 위한 목회적 돌봄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감적 태도가 요청된다.

B. 상담의 비밀보장

〈연구참여자 7〉

일단은 비밀보장이지요. 교회에서는 말하면 금방 퍼지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거기(외부 상담소)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교회 상담실은... 왠지 상담한다 그러면 조금...분위기가 약간 상담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같은... 무슨 환자 취급 받는 거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상담소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신뢰가 안 갔어요.

제임스 W. 페니베이커(James W. Pennebaker)는 흔히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거나

---

[90] Ibid., 154.

하면서 접하는 낯선 이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다고 한다. 그들이 듣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심지어 듣는 사람이 무비판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그 이유가 나중에 듣게 될 비난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다.[91] 여행 중 만난 사람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으므로 무엇을 말하건 간에 이후에 어떠한 관계에도 결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듣는 사람이 비판적일지라도 그 비판이 퍼져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의 상담소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서 내담자는 안전하고 익명인 사람에게 고백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5〉

> *교회 상담소를 다녀오고 나서 내 자신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과 매주 교회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한다는 사실이 매우 힘들었어요. 아니 교인 수가 2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왜 그래 자주 만나지는지... 막상 상담을 하고 나니 같은 교회 교인이란 사실이 정말 부담이 되었어요. 나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 상담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내가 면담을 한 사람들은 모두 개신교 교인으로 교회 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어서 그 곳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혹은 선입견 때문에 교회 내 상담소를 기피하고 외부의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목회상담을 전공하여 소위 상담목회를 표방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도 있다. 그런데 왜

[91] Cited in James W. Pennebaker, *Opening Up 털어놓기와 건강*, trans. 김종한 and 박광배 (서울: 학지사, 1999), 163.

그들은 교회 내 상담소나 목회자를 통한 상담을 마다하고 이처럼 외부 상담기관을 찾을까?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자주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나 교회 상담소 상담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상담이 꺼려지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친한 사람과는 더 이상의 상담진행은 물론 교회에서 자주 대면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목회자들은 그들의 사역의 기초를 교인들과의 우정에 두려고 한다. 이럴 경우 우호적인 관계의 수준에서 상담적인 관계의 수준으로 옮겨가야 할 때, 그리고 다시 평소의 우호적 관계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된다.

목회자나 교회 내 상담소 상담사역자가 비교적 평소 만남이 잦고 친분이 두터운 교인들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재정의하고 잠시 동안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칼 R. 로저스(Carl R. Rogers)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서 "치료하는 동안 혹은 치료가 끝난 후에 정상적으로 그들의 관계의 직접적인 현실에 수반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담자를 사교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별 지장 없이 만날 수 있다"며 그의 신념을 표현하였다.[92]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교회 내 상담소 이용자들의 하나 같이 하는 대답이다.

목회자는 교인과의 상담이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내담자인 교인과 일반적인 접촉을 그치지 않는다. 일시적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다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경우 목회자들은 상담을 통해

---

[92] Carl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199-200.

도와주려고 했던 교인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고백한 내담자들이 나중에 그들의 고백을 낱낱이 알고 있는 상담자와 마주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내담자들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도록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듣는 목회적 동기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 6〉

내가 다니던 교회는 워낙 오래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외부에서 보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 놓기가... 내 비밀이 노출된다고 해야 하나? 믿음이 없다고 하야되나? 교회에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사실 오히려 그게 말이 돌고 돌아서 내게 (다시) 들려오게 될 때 그게 나한테 상처치유가 아니고 비수가 와서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교회가 상담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조금만 있는 교회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상담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상담자)이 오히려 '(나더러) 여태껏 교회를 (권사가)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겉으로만 (신앙이)좋아 보였지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신앙이 그 정도였구나. 네 문제는 그거 (신앙이 부족함)였구나' 하고 나를 평가할 때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결정해서 교회를 옮길...

만약 내담자들이 자신의 고백을 다 들은 목회자가 언젠가 그들의 고백에 담긴 내용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거나,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듣고 그를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상담소나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현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기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적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뜻 개인적인 상담을 응해 오는 편은 아니다. 최근 상담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나마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편이나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혹은 지연과 학연, 친척관계 등으로 얽혀 너무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신의 털어놓은 비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박근원은 *목회상담신론* 역자 서문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구교회에서도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모두 속속들이 노출하는 방식의 목회상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라인벨은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말한다.[93] 권희순은 그의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 여성들은 여성상담자와 비전문가(목회자)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목회상담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는 여성주의적 상담과 그들이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이 때 한국교회의 여성을 위하여 비전문가인 상담자, 다시 말하면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의 교역 활동 영역 가운데 목회상담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94] 또한 담임목사와의 상담을 꺼려하는 이유는 첫째, 담임목사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육을 받은 여성부교역자나 사모가 상담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기춘도 한국교회 회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을 위하여 여성교역자로 하여금 동질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5]

〈연구참여자 12〉

교회 상담소를 이용한 후 내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과 매주 교회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한다는 사실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상담을 하고 나니 같은 교회 교인이란 사실이 정말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부 상담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

---

[93]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24.

[94] 감리교 목회상담센터, *한국문화와 목회상담: 화강 이기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목회상담, 2003), 292.

[95] 이기춘,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상담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4), 94.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헨리 나우웬은 나의 비밀,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여 상대를 탈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멀리서 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끌고 있으며, 이렇듯 탈취의 형태는 곧 권력의 형태이고 그것은 약탈구조로 되어 있다. 즉 상대의 약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상대가 내 길을 막을 때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즉 우리는 상대의 인생 이력을 들춰내고 과거를 조사하여, 앞으로 그가 나의 권력에 도전할 경우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는 탈취의 삶이라고 한다.[96] 이것은 상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을 드러낸 내담자들이 상담 이후 상담자에 대해 느끼는 일반적인 느낌이며 이 감정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 헨리 나우웬은 이러한 탈취의 형태를 초월하는 사랑의 존재에 대해 그 기초는 한쪽에서 상대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며 품어 주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고백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럴 때 '나의 힘이 곧 너의 힘'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약함이 곧 나의 약함이며 너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말할 때 힘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사랑이란 바로 약자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친밀함이 곧 공감의 관계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나아가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내담자들의 공동체 형성도 상호 지지기반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의 상담은 특히 이러한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도 아래에 서 있을

---

[96] Henri Nouwen, *Intimacy 친밀함*, trans. 윤종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34-35.

때 비로소 '연약한 자를 위한'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공감적 연대'가 형성

바람직한 상담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C. 아는 교인 상담하기

〈연구참여자 2〉

저의 경험으로는 아무튼 그거(상담)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잘 안 쳐다보려고 하고. 그~ 자기네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어렸을... 애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자기가 이제 자해를 하는 걸 애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애가 커가지고 그 사춘기 때 들어가니까 경계선적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난간에서 00층인데 난간에서 자살하겠다고 막 이제 그런 정도로 막 애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때는 이제 우울증에서 좀 헤어난 거지요.

헤어났는데 그 애가 너무 심각하니까 교회에서 상담사 찾아가서 상담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한 게 후회가 애가 좀 괜찮아 지니까(웃음), 후회가 되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걔가 그 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걔가 상담을 해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까지도 안보는. 어, 자기가 한 말이 이제 다 들통 날까 봐. 응,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상담)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때에도 교회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로, 외부 상담기관하고 서로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무조건 모른 척 하는 게 좋지요.

이 내용은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과 동일한 맥락에서 연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상담을 꺼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자신을 상담해 주었던 사람과 예배 시간 등 매주 한 번 이상 교회에서 마주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고 거북스럽다는 것이다. 즉 이런 이유로 인해 평소 아는 사람과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상담을 한다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상담 이후 겪게 되는 후유증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상담 이전에도 꺼려지지만 비밀을 나눈 상담 이후가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자주 만나는, 친분이 있는 사람과 원하는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 심지어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 도와주려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목회상담자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내담자들이 그 후에 그들의 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담자를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연유로 인해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할 때 고해소에서 사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10〉

담임목사님~ 첨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요.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이미지는 전능자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란 거요. 상대적으로 나는 믿음도 약하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끝에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마무리되니까 공감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도 없고, 어차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이렇게 끝날 바에야 뭘 상담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상담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문제에 빠져있을 때는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담이란 걸 하면서 내 문제를 들춰내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구요. 내 문제가 알려졌다는 게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속내가 들춰지기 땜에 창피하고, 괜히 이사람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담부터 외부에 알아보고 전문상담기관을 찾게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상담 받다가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질기게 붙어 있지만(웃음) 그것도 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그런 거예요.

목회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쏟아내 놓으면 앞으로 더 상담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해소되지만 그 관계가 시간을 요하는 수용과 이해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내담자가 목회상담가를 상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더 털어놓게 만들어 자신을 당혹스럽게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만약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두 알고 있는 목회상담자가 언젠가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두운 이면 사건에 대해 알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내담자는 안전한 다른 교회를 찾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리처드 데이링거(Richard Dayringer)는 목회상담자의 상담 후 점검 단계에 대해 말하기를 첫째, 지나친 의존은 내담자들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목회자들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문제인데, 이럴 경우 기도를 통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목회자가 내담자에게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완벽주의적인 목표를 내세운다면 두려움과 적대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끝으로 한담(Gossip)은 상담 회기 동안 얘기되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해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97] 목회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면 좋다. 그는 어떠한 비밀도 지킬 수 있기에, 전에는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것과 알 게 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것에도 또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목회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신앙적, 영적 성숙을 돕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상담에 있어서 목회자의 완벽주의 경향은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상담기법의 노하우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 걱정 없이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Paul

[97]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관계중심 목회상담*, trans, 문희경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194.

Tournier)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인정한 바에 따르면, 수술을 할 때 두려운 것이 있다면 수술 자체보다도 마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이 잠들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비밀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다.[98] 내담자들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 삶의 비밀들을 엄격하게 존중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너무 꼬치꼬치 질문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내담자들이 표현할 용기가 없어서 가슴에만 품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했을 때라도 그 비밀스러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들이 목회상담자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목회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상담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중 받는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비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느끼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윌리엄 밀러와 캐서린 잭슨(William R. Miller and Kathleen A. Jackson)은 공식적인 상담의 종결 이후 사후 상담을 위한 처음 몇 번의 접촉이 결정적임을 이야기한다. 가령, 목회자는 예배 중에 혹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평소 같지 않게 사라진다거나 눈 접촉을 피한다거나 하는 회피의 징조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지적한다. 어떤 내담자들은 목회자를 보면 당혹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목회자가 상담이 끝나고 난 후 첫 주간에 약간의 편안한 사회적 접촉들을 시도하고 전화로 이러한 염려에

[98] Paul Tournier, *Secrets 비밀*, trans, 소승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41.

대해 토론한다면 문제는 대개 해결된 수 있다고 한다.[99]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상담료를 받지 않을 것이고, 혹자는 정기적인 상담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혹은 내담자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과 교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목회자는 분명하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내담자의 소망을 존중하여 그가 교회에 등록하게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 혹은 목회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 또는 선물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내담자가 느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일부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전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100]

목회자가 통념상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유의 역할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 역할을 겸하게 될 때 형성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 하우그와 알렉산더(I. Haugand C. Alexander)는 세 가지의 우려되는 점을 말한다. 첫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목회와 상담에 있어서 경계선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많은 목회자들에게 작용하는 보상심리는 교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동경이다. 소위 인기가 많은 목회자는 교인들이 최소한의 경계 내지는 한계만 지키면서 항상 만날 수 있고, 교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는 늘 뒤로 접어둘 수 있는 사람, 즉 다소 도를 넘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로 제한 된 자기 인식과 함께 개인적인 욕심

---

[99]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관계중심 목회상담*, 195.

[100] 부록으로 첨부한 한국목회상담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의 윤리규정 참조.

없이 봉사하는 직업적 이미지는 목회상담자들을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담자를 이용하는데 쉽게 빠지게 한다고 지적한다.[101] 만약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적인 관계가 우정이라든지 다른 관계와 상이한 것이 아니라면 목회자는 내담자로서 교인들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식사 초대에서부터 자신 혹은 다른 교인들의 문제를 의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힐트너는 목회적 관계에서 상담적 관계로의 전환은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두 관계에 있어서 명료화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목회자는 결국 상담적 관계를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게 된다고 한다. 즉 흔히 '일단 드러내 놓고 보니 다른 어떤 상담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102] 말하자면 일반 목회적 관계에서 접해오던 문제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내용에 있어서 그다지 특별한 상이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목회적 관계와 상담적 관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두면 일반 목회적 관계에서 목회상담의 관계에로의 전환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교인들과의 상담을 한 목회자는 상담자 본인뿐만 아이라 그 상담자와 관련된 친척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그들과 만남을 가질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언어 표현의

---

[101] I. Haug and C. Alexander, "Dual Relationship Issues among Clergy Therapist," in *Ethics Casebook*, ed., G. W. Brock (New York: AAMFT, 1994); cited in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관계중심 목회상담*, 190-91.

[102] Seward Hiltner and C. Lowel G. Colston, *The Context of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61), 38-39.); cited in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관계중심 목회상담*, 192.

태도이다. 목회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을 만나는 일과 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 신중한 표현 방식을 유지하면서 계속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사역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D. 자신의 이야기 털어놓기

〈연구참여자 8〉

시골에서 올라와 바쁘게 살다 보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이고 뭐고 교회 생활도 안정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항시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 집을 새로이 마련하고 지금 사는 데서 좀 가까운 교회 찾다가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담임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고 소문도 있었고 막상 다녀보니 그런대로 말씀이 좋더라고요. 성경공부나 구역모임 같은 거 또 금요철야(예배) 뭐 이런 거 예전에 다니던 시골교회보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늘 마음 한구석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 동안 살면서 (더럽게) 힘들었고 지금도 끙끙대면서 살고 있는 내 마음 형편을 어디다 대고 좀 속 시원히 털어나 놓고 싶은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교회 분위기상 내 눈치로 딱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상담을 할라고 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가 대번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눈치 받을 것 같아 쉽게 말을 꺼내기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매일 아쉬움을 반, 기대 반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언제 때가 되면 (상담)센터 같은 곳을 찾아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놓고 누군가와 이야기 하고 싶은 절박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 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두의 공통된 심리적 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가장 깊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에 의해,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웃들과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제임스 W. 페니베이커(James W. Pennebaker)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다른 사람도 흔히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을 그의 실험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103] 이를 통해 하나의 공감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성들이 목회상담자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으며,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찾고 그 속에 담긴 부정적 요인들을 추려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여성들은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이야기와 함께 현재의 삶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이루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일궈낼 수 있게 된다. 고미영은 이러한 여성의 이야기하기를 통해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상황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104] 그러므로 자아 정체성과 아울러 자신의 목소리를 앗긴 채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이야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 치유에서 말하는 경청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공감적 경청이 있고,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분리하고 명명하여 내담자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해체적 경청이 있다. 이러한 경청의 기저에는 내담자의 이야기 안에 그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들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보고 그들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회 내 여성(약자)들에 대한

---

[103] James W. Pennebaker, 166.

[104] 고미영, "여성들의 이야기: 그 실체와 가능성," 150.

목회상담적 배려 차원에서 분명 마련되어야 마땅한 대안적 방법이라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비롯하여 상담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고통스런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심리적, 환경적으로 노출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안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만약 어떤 의미에서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반응이 있거나 심지어 거부를 당할 경우 그는 이중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교회집단에 대해 적대적이며 회피적 성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상담자에게는 내담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그를 옭아매고 있는 문제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분리를 위해서 내담자와 문제를 분리하여 문제를 내담자의 외부에 있다고 보며 그 외부의 문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담자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제 그 문제를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편 여성은 가부장제적 환경에서 자신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디며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쌓이면서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어 분노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외부의 강력한 억압에 순응하여 살아오면서 이제는 외부가 아닌 스스로 내면에서 당연시하고 강요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분노도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분노가 결국은 자기비하나 낮은 자존감, 수치심과 죄책감 등의 형태로 그를 힘겹게 하는 것이다. 목회상담자는 여성이 분노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분노표출에 대한 스스로의 엄격함과 정죄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분노표현은 결코 죄가 아니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서 일방적인 참음이라는 희생을 하지 않고도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조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과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데 이것이 이야기 상담을 통한 목회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내담자를 향한 신뢰와 지지,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해체, 분리해 내고, 또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내담자의 자원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회복하고 현재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과정은 여성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목회상담자는 내담자가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지(치유)공동체와 연합하도록 하여 상담자와의 상담을 마친 후에도 새롭게 자기를 표현하며 스스로를 세워감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지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 지지(치유)공동체의 형성

〈연구참여자 8〉

교회 목사님은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가 어렵고요. 18,000명 되는 교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는 교회 상담실도 변변치 않았고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 설교 요지가 '치유에 집중하기보다 교회의 성령 충만의 바퀴에 들어가서 굴러가야 된다.' 뭐 그런... 그래서 출석교인 5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옮겼지요. 남편은 그 교회 그대로 다니고... 한 10명 정도 늘 같이 모여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참 아이러니한 게 목사님은 상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어찌 잊겠으며...'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10명이 지금까지 내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치유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집단 개념 형성과 연관이 있다. 최상진은 '우리'는 성원들이 '우리'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동질감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105] 그리고 서구의 개인중심적 '우리'관계와 비교하여 개인의 존재를 전제할 수 없는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는 개인이 집단 상황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전체 집단에 맞추어 변화, 순응시키고, 전체에 융화됨으로써, 개인성의 합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집단성을 창출한다고 한다.[106] 페미니즘적인 이야기 치유를 통한 여성들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이야기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로 삶을 재구성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성 혼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그들이 안심하고 그 작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내재하던 문제를 분리하여 제거하고 힘을 얻게 할 수 있지만 더불어 내담자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혹은 위협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소위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담자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선택을 시도하려 할 때 그의 지난 일들이 다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험을 들춰내며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가 양자 사이에 묶여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평가의 방법들이 있으며,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나 간 어두운 이야기들로부터 헤어 나온 후에 다시 그리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그러한 두려움과

---

[105]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리'는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와 관련 있는 무리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이다.

[106] 최상진, *문화심리학: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10), 145.

불안감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자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무엇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때 이를 지지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누거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만이 내담자인 여성들은 그 동안의 자기 파괴적인 개인적 문화적 이야기에 저항할 수 있고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107]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견지하며 자신의 삶을 새로이 세워 나가길 원하는 여성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가부장제적 지배 아래 잘못 된 요소들의 실체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이에 맞서는, 함께 하는 공동체와 그 속에서 이야기를 키워 나가는 것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각양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들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고 든든한 유대관계를 만들어 간다.

치유에 있어서 지지공동체는 큰 힘이 된다.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의 환경 아래에서 억압과 인내를 되풀이하며 경험해 오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비슷한 경험을 함으로 인해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 · 공유하며 지지해주는 동일 여성 집단과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치유의 큰 힘이 된다. 이처럼 지지(치유)공동체와의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비슷한 경험의 여성들과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며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지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은 다른 이들의 지지와 함께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들음으로 인해 자신의

---

[107]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279.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지지공동체 속에서의 이야기함과 들음의 반복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힘으로 새로운 자기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된다. 지지공동체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긍정적 응원의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상호지지적 관계 속에서 정서적 교감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효과에 힘입어 건강하고 통합적인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로이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공동체이다. 손운산은 기존의 교회는 교육과 친교, 훈련의 장이 되어왔으나, 이제는 전환기적 장이 되어야 하며 목회자는 가장 좋은 전환기적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기적 공간에서 사람들은 삶을 다시 추스르고 다음 단계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힘을 얻게 되며 여기서 상담의 의미는 전환기적 경험이며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잠시 쉬면서 힘을 얻는 경험이라고 한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는 '되돌아봄'과 아울러 동시에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보는 '내다봄'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힘을 얻는다고 한다.[108] 그런 의미에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의 교회 지지공동체는 기존의 가부장제 구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성이 아닌 스스로를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

[108] 박근원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박근원교수정년퇴임기념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35-46.

힘의 밑받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회 내의 여성들의 지지공동체에서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지금까지의 거짓된 자기인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자신을 세워 가며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편견으로 치우쳤던 이해를 넘어 새로운 하나님 경험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장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여성성에 대해 건강한 사랑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무엇보다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 응답자들도 어떠한 내용의 상담이든지 그 시작은 안전한 장소에서 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오랜 세월 여성들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구상과 생각들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한 곳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들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곳으로, 거기서 여성들은 비로소 자신과 주변의 변화와 아울러 새로운 삶에 대해 용이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지기반이 되는 것이다.

F.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의 역할

〈연구참여자 2〉

그런 거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눌리는 것 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본인이... 그냥 자기가 여잔데 참아야 되는 걸 못 참았나? 이래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

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상담의 문을 못 여는... 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아직도,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을,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책감. (작년의 일인데) 000학교 교사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격장애야.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 데 이 여자는 자기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안와골절(眼窩骨折). 그러니까 눈에 그... 뼈가 골절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때리니까 이제 못 견디고 나왔는데. 나와 가지고도 계속 그 사람한테 돈을, 생활비를 주고 있는... 그냥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때리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지, 진짜 마음이 너무 착...착한건지 하여튼. 아휴...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으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감정 자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봐서, 제가 참 특이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팔자다, 운명이다 그러고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버리죠. 교회에서 상담해도 000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걸로 끝내버리니까. 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이제 그런 관념을 밑에는 깔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여자 자체가 그런 관념을 갖고 자기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참잖아요. 어느 순간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상담으로 푸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 그냥 또... 또 자리 잡아 버리고 그걸 여성 입장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아휴. 교회에서는...

〈연구참여자 7〉

음~여자니까 참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학습되어 온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나는 엄마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여자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 양반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혼은 안 된다'는 거하고 교회에서도 성경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를 이제껏 힘들게 끌고 온 것 같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한 거죠. 내 평생을...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는 기존의 소위 전통적인 상담자와는 그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전문상담자로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 나가는 것과 내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으며,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답을 알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권위와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위계적인 상담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과정을 함께 겪어가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자세는 교회 내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소위 '섬김'과 '돌봄'의 모습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거리를 두거나 경직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보살펴 주는 관계이다.

내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상태에서 상담자를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마법 같은 실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내담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내담자 사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자의 일방적 노력으로 어떤 치유와 변화도 일어나기가 어렵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는 먼저 스스로가 이러한 가부장제적 남성우월주의를 대하는 인식과 이해가 철저히 선행되고 페미니즘적인 상담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상담과정을 통해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내담자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여성과 교회/사회관계 구조를 평등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화 과정을 병행하여 거치면서 내담자 역시 상담자를 한 인간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상담자는 자신도 이 사회구조적 해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개방하게 될 때 내담자는 한 층 상담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수직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모두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 뜸과 동시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11〉

남편이 30대 후반부터 7-8년간 외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남편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남편은 교회에서 안수집사에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나이 좀 드신 권사님이 상담을 해 주시더라구요. 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혼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죠. 그 권사님 얘기는 (지지도 격려도 없이)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해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대뜸 남자 쪽 편을 드는 것처럼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집사님이 참아야 한다.

여자가 원래 참는 거야' 하시면서 권사님 자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심지어 권사님 남편(현재 장로)도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줄줄이 바람을 펴 가지고 내가 참 고생했다. 그래도 내가 여자니까, 교회 다니니까 참아가지고 지금 그나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니 집사님도 날 닮아서 이혼 같은 건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강요였어요. 지금 내 감정이나 내 처지는 아예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노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놈의) 교회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 10여 년 이것저것 많이 참으며 다녔지만 이 문제를 놓고 딱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끝으로 한국교회 구조상 교회 내에서 실현해 나가기는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교회 내에서 소외되어있지나 않은지 구체적으로 둘러보아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담자 자신이 이미 의식화 된 여성이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는 내담자와 동일하게 양자의 삶이 개인의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인 삶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누거는 "단지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상담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포함하여) 문화변형에 둘 때만이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9]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는 교회 내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과 관련된 기관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 역할이 다시 교회 내로 파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들이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역 내지는 금단의 분야로 여겨져 왔던 남성중심 사회 구조에 상담자 자신이 먼저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모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내담자는 상담 이후 자신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눈으로 보고 스스로 변화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상담자를

---

[109] Christe Cozad Neuger, *The Arts Ministry Feminist-Womanist Approaches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성을 위한 목회 사역*, 144.

하나의 모델로 삼아 구체적인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담자는 상담자를 구조적 모순을 가진 교회/사회 속에서 문제의식을 공감 . 공유해 가며 서로를 감싸주는 친구요 자매요 동료로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교회 내 지지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는 지지공동체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새로이 선택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신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처럼 고통으로 주저앉은 이웃 여성들을 향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 역시 훗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울 수 있다면 바람직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나의 기대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교회 내에서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Chapter V

교회 상담소 현황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를 마주하고 있는 상담가는 자주 깊은 절망과 희망 없음에 대한 질문을 직면하게 된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 도저히 해결할 길 없을 것 같은 공포감에 싸인 사람,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일 것이다. 모든 내담자들은 추상적 혹은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 그들의 문제를 직면하는데 있어서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상담자의 주요 과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 희망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회의 상담소는 바로 이러한 희망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어야 하며, 그 모두가 인간의 미래에 대한 바램임을 기독교 내담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내담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A. 분석 자료 개괄

1. 상담 대상자

〈연구참여자 2〉

많지요. 첨엔 가정폭력 문제로 아는 사람 소개 받았다며 찾아오셨는데 상담이 진행 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교회가 이런 거(상담), 이렇게 좋은 일(부부, 가정회복) 하는 줄 몰랐다면서... 집사람 따라 교회 다녀야겠다.'는 분이 더러 계세요. 그럴 때 좋지요. 이런 느낌이 보통 (교회)상담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내 상담소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앞서 언급한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 A, B, C 세 곳 내에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에 대한 자료를 검토 하자면, 우선 내담자인 상담대상과 상담자 상담진행 방법과 과정 그리고 상담소 조직과 운영 그리고 외적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먼저, 상담대상에 있어서 당해 교회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역사회 전반에 두는지에 따라 설립목적에 큰 차이가 있었다. 당해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위 전도차원에서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상담의 기회가 열려 있었으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당해 교회 교인들에 제한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교회 교인들도 이미 상담을 위해 신청 후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적체현상과 타교인들에 대해서는 타교회와의 목회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양하는 것이 묵시적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설립당초부터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개소한 곳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종교나 출석 교회에 관계없이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그 방향성이 정해졌다. 이런 정황들을 통해 돌봄과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당해 교인들만으로 상담의 대상을 국한하기보다는 좀 더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상담사역자의 전문성

〈연구참여자 3〉

나 자신의 정서적 지탱과 영적인 위로 얻기를 원하는데 교회 상담은 내가 무슨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넘겨짚어요. 자꾸 그리고 그 문제를 캐려는 듯 심지어 어떤 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 하듯이 꼭 뭐 나는 경험하지도 않은 거... 그리고 정말 있지도 않은 과거 문제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너무 부담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담이란 것이 꼭 무슨 심각한 문제를 털어놓아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외부상담기관을...

상담자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상담을 전공한 전문목회상담자의 경우, 그리고 전문상담자의 경우 특성과 대우 문제와 그들의 자격, 상담사례지도와 수퍼비전 등을 검토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교회 내 상담소의 경우 상담지도 전문목회상담자가 있었다. 상담지도 목회자는 목회상담학 학위를 가진 전문목회상담자로 대외적으로는 교회 상담소를 대표하며 상담의 전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단지 대표, 고문, 지도 등의 이름만으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협동목사 혹은 교구목사로 교구담당과 아울러 맡는 경우 등 여타 교회 부목사들이 맡은 사역과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담사역의 전문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상담사역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한편 이런 경우 긍정적으로 보면 목회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목회의 방향성도 유지하면서 상담사역을 동시에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상담원들을 비롯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목회상담자의 지도 아래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경우 평신도전문상담자와 평신도자원봉사상담자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평신도전문상담자는 대부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유급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평신도자원봉사자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교육을 받은 전임 상담자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급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담자에 대한 대우 문제는 그들의 전문성과 각자의 자긍심 그리고 교회 내 상담업무의

발전과 지속성, 상담사역 업무 영역의 확대와 질의 향상 등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자들에 대한 사례를 교회가 감당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자격증과 사례 지도

상담자 자격취득 여부와 공인문제에 있어서 발급기관 등의 검증에 대해서는 전공여부와 관련학과와 이수과목, 관련된 학회나 협회 그리고 자격증 유무와 임상경력 등의 자료로 검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회 내 상담소 사역자들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격 여부와 검증사항에 만족할 만한 요건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었다. 다만 다양하고 많은 양의 상담 건수에 비해 상담사례에 대한 지도 체계가 제도적으로 잘 구비된 곳은 드물었다. 자체 사역자들끼리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특정 상담사례를 두고 회의와 토론을 하고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도와 점검체제가 취약하였다. 아울러 상담사역자들에 대한 수퍼비전 제도는 더욱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상담수요에 비해 중앙집중식의 관리기관이나 체제가 미비한 국내 상담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며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상담사역을 행하여야만 좀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목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4. 상담의 과정

상담과정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상담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울러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한 사이버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상담방법은 교회 특성과 책임자의 전공과 상담원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지시적이고 단기 해결 중심의 상담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담자의 유형과 문제에 따라 예를 들자면

천안함 문제나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중적인 관심사로 다가온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을 비롯하여 장 · 단기 심층상담도 필요하며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도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교회 내 상담소에서 해결할 역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문기관과의 연대를 통하여 시행하는 상담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것은 본론에서 다룬 비밀보장 문제와 목회자가 혹은 아는 사람이 상담을 할 경우에 따르는 교회 내 상담소 기피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상담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회 내 상담소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당연히 무료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 . 단기 심층 상담의 경우 상담의 비중에 따라 내담자들이 상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 오히려 상담 진행에 있어서 그 기대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일부 상담소는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감사헌금 형식으로 교회에 내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담비를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비의 지불 유무는 어떤 경우든 상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담자로 하여금 감사의 표현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상담 이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5. 운영 방식

상담실의 운영방식에는 교회 부서 소속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 교회 부서 소속일 경우 교회의 지원과 관리라는 면에서 안정적인 반면 상담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한이 따랐다. 예를 들어 상담사역에 관여하는 교회 부서

책임자가 상담에 전혀 문외한일 경우 상담소 운영에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운영방식으로 상담내용이나 상담기록을 담임목회자나 교구담당 부목사에게 보고형식으로 일부 혹은 많은 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교회 부서 소속이든 자율적 운영체제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 내 상담소를 운영하는 교회 자체의 절대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환경의 바탕과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안과 비밀유지 문제에 있어서 절대 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운영하는 교회 내 상담소는 계속적인 성장과 긍정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중 . 소형 교회의 탄력적 상담소 운영

교회 내 상담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는 중 . 소형 교회의 경우 공간 마련과 상담사역자 상근이 어렵다는 점이 있으므로 소수이긴 하지만 외부의 전문상담기관과 연대하여 비록 열악하나마 경우 따라 시간제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있었고, 목회자나 평신도 중 상담관련 인력이 혼자 버겁게 담당하는 일인다역 상담소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상담사역에 있어서 하나 같이 따르는 문제점은 가까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 상담을 마친 후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목사나 사모 혹은 부교역자와의 개별 상담은 출석 교인들이 기피한다는 제한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특히 중소규모의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상담과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상담을 병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보였으며 교회 규모가 작고 목회자가 상담에 대해 비전문가일수록 외부기관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상담실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오히려 외부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110] 이는 자신이 이미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 내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심한 염려와 아울러 거부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교회 내 상담소를 찾는 경우도 혹 특정 사람과 마주치거나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상상 이상의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교회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교회 밖 외부상담기관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교회 내 상담소의 위치 바꾸기와 전문성을 고려한 상담소 내의 시설 변경, 예배 시간 등 교회 공식적인 시간을 감안하여 상담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교회 내 상담문화인식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를 느꼈다. 끝으로 교회 내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 중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의 경우 경제 · 민, 형사 관련 법률 · 세무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컨설팅을 겸하여 상담소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었다. 이럴 경우 개인이나 부부문제 등의 상담도 이들 사안과 동일시하여 상담소 이용이 비교적 원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교회의 목회방침이 확고히 수립되어 있어서 상담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장차 교회 부설 전문상담교육기관을 세울 비전을 가졌다든지 하는 극히 일부 교회에 한정되어 있다는

---

[110] 연구를 위한 사전면담 자료 수집을 위해 교회 내 상담소를 기피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최근 교회 내 상담소에서 상담 경험이 있는 개신교 교인으로서 교회 내 상담소의 부정적 상담 경험으로 인해 현재 외부 기독교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연구 취지를 이해하고 면담에 응한 사람으로 하였다. 그리고 외부 기독교상담기관이란 각각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상담기관으로서 나의 연구 의도를 이해하고 협조요청에 기꺼이 응한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한이 따랐다.

그리고 만약 상담실이 교회 내에 있을 경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상담실을 찾아오는 교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비밀보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거론된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비록 가깝지만 교회 내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 그러나 장점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을 비롯한 일부 내담자와 외부에서 오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한계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담의 효과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 외부에 상담실을 두고 운영할 경우에는 위와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면을 놓고 볼 때 같은 지역이나 근거리에 위치한 중 · 소형 교회의 경우 서로 연대하여 외부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목회상담자를 배정하거나, 목회상담자가 설립주체가 되어 인근 지역 교회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담임목회자 혹은 상담사역자가 같은 교회의 아는 교인들을 상담할 때 야기되는 부정적 문제점들과 정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B. 교회 상담소 운영에 대한 포괄적 제안

1. 외적 문제

a. 신학교와 교회의 협력

내가 방문한 곳 중에서 C교회 상담소가 가장 규모 있게 전문적으로 활성화 되어있다. 교회 안에 이 정도의 규모와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인 수와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가가 동원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낱낱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면담 과정 중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디아코니아' 부재로 인한 불신자들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는 긍정적인 현상도 있었다는 사실이다.[111]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교회의 존재 의미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며, 갈등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해주고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깊이 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들이라고 하였다.[112]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험에 의하면 본인의 정서적 지탱과 영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았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답을 교회에서 구하였다. 이 문제는 사전면담에서도 유사한 대답들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상담소를 둔 대형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니아(Diakonia)'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벧전 2:12) 교회 내 상담사역은 또 하나의 중요한 디아코니아 사역이다. 이 사역에서의 중요 기능은 치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이다. 모든 목회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콘텍스트를

---

[111] 교회의 전통적 과제 네 가지 중 하나인 디아코니아(diakonia)는 좋은 소식을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케리그마(kerygma), 가르침의 디다케(didache), 수직적 차원을 지닌 돌보는 공동체의 수립이라는 코이노니아(koinonia)와 함께 서로 관계성을 지니고 모두 상호적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12]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117.

제공한다.[113] 이 기능은 "왜 사람들이 교회 혹은 교회 내 상담소를 찾아오는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둠으로써 더욱 자명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C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부 지역에 중소 규모의 교회와 상담전문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그렇다 보니 기타 지방에는 교역자나 평신도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목회상담 교육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 차원에서 지방 소재 교회에도 상담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록 교회 내 상담소가 있더라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 상담이 선교나 목회의 일부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치유목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상담이 진행되었다.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되었고 부흥회보다는 세미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일시적 붐을 형성하는 것으로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교회 내 상담소는 전문가 영입과 교회 내 봉사자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각 교단과 신학교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신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CPA훈련 등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아직도 임상훈련 과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상담과목을 이수한 후 정작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는 당황하게

---

[113] C. W. Brister, *The Promise of Counseling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trans. 오성춘 (서울: 홍성사, 1986), 26.

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담적 방법보다는 신앙의 문제, 곧 내담자의 믿음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하게 됨으로써 내면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과만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신학교 내의 상담교육과정의 다양화 내지는 변화가 요청된다. 최근 설립된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신학교와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좋은 모델이라고 하겠다.

b. 재정문제

대표적인 한국교회 3곳의 상담소 운영 실태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A교회를 비롯한 대형 세 교회 동일하게 재정의 원천은 본 교회에서 충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교회에서 상담실을 하게 되면 임대료, 각종 공과비, 관리비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담소를 꾸미기 위해서 과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비싼 가구를 들인다든지 시각적인 외형을 꾸미는 것보다 현재 주변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처음에는 각종 검사와 내담자들이 처음에 와서 안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에 집중하여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재정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교회와 줄다리기를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 보다는 실효성을 앞세워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상담을 통해서 얻어진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와 여러 상담 효과들을 널리 알림으로 상담소의 존재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헌신예배 등을 통해서 알리거나 혹은 담임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구체적 상담에 대한 내용은 그 비밀을 유지하되 거기서 나온 좋은 효과들은 수시로 이야기를 통해 나누는 것도 상담소 역할과 그 효과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먼저 교회 내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찾는 이들의 발길이 많아지면서 상담소의 존재감이 점진적으로 부각이 된 후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A교회나 B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교회 규모에 비해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서서히 커진 경우이다. 이처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교회 내의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성실히 전문성을 발휘하며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c. 운영방식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 중에서도 상담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 내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이전보다 인적, 재정적, 공간적 관심과 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교회 내의 사역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선교와 봉사의 차원으로 성장해 가는 곳도 있다. 다만 나는 경영 방식 중 보고행정체계의 개선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상담소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 형식의 구분이다. 상담소 운영 실무자가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부교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역자 회의 등을 통하여 상담소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임목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혹은 다른 부교역자들과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회 측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목양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보고체계와 방식에 있어서 독립적 운영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월간 혹은 연간 상담상황에 대해서 숫자상의 내용 보고 이외에 상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철저히 내부 보안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공식적인 관계에서도 결코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담내용의 비밀보장과 비밀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의 기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상담소를 이용한 교인들의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들의 신뢰도를 높여감과 동시에 상담소 기능을 전문화해 나가는 실천적 방법 중 하나이며, 상담 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적 문제

a.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목회상담의 의미가 목회를 돕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회 성장을 돕는 차원이기에 결국 목회상담이 교회 내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목회상담에 대한 인식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목회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도 그것이 목회상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현재와 미래의 목회사역에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목회철학이나 목회방침과 맞지 않는다면 목회현장에서의 실천과는 거리가 먼 이론에만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이견이 많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신학과 목회와 상담의 관계에 대하여 정태기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세속화 신학사상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본회퍼는 지금까지 전통 기독교가 고수해온 이분법적 사고(Thinking in terms of Two Spheres) 때문에 신학이 병들었다고 말한 신학자이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하나님은 다른 실체 가운데 속해 있는 일부의 실체일 뿐이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두 실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재, 즉 하나님의 실재만 존재한다.[114]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실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15]

---

[114]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197-98.

[115] Ibid.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학자 혹은 심리학자는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아울러 개인적인 관심분야를 고집하는 자세는 지양해 나가야 하겠다. 목회와 상담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넘어 동반적 관계라는 인식전환이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서의 상담목회 방향을 더 넓고 효율적인 길로 발전하게끔 하는 초석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 청중은 교회 내 상담소를 둔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에서 상담목회를 교회 사역의 한 분야로 생각하는 사역자이다.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만능이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교인들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교와 이를 통해 배출되는 예비목회자들도 전문적인 목회의 영역을 구분하여 전문상담목회자를 양성할 필요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목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그것과 연계하여 상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연장하여 전문상담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담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그야말로 목회적 상담의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 전문상담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은 실정이다. 만약 이것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국 교회의 상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사회적, 문화적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병든 가정이나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특히 구조화되어 온 여성(약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가정과 사회환경 내에서는 성장은 물론 건강유지가 힘들다. 그러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 분석과 결함에 역점을 두는 시각에서 개인을 병들게 하는 억압적인 환경과 문화를 재해석하는 관점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개인이 문제와 분리되도록 돕고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과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 형상을 머금고 있는 한 인간이 억압을 딛고 참 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약속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상담을 인식하여야 한다.

b. 페미니스트 목회상담과 교회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거론한 것처럼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남순의 말처럼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것이다.[116] 내가 그간 경험하고 또 논문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맞닥뜨린 것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내담자들 중에서도 여성 못지않게 가정과 사회 저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부장제성의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정서적, 정신적 차별 내지는 학대에 시달리며 그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응당 참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논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조차 진 이들을 위한 페미니즘인 것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인간 본연의 권리가 억압 당한 채 약자의 자리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이들이 상담을 통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들의 권리와

---

[116]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7.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페미니즘이다.

강남순은 오늘날 교회 중에는 끊임없는 자기비판적 겸허성을 가지고 개혁의 의미를 실천해 나가는 교회도 있지만 문제는 예수정신을 실천하기보다는 그것을 왜곡시키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교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117] 이러한 교회 양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강남순은 해방적-개혁적 교회를 제안한다. 해방적-개혁적 교회는 여성들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사고와 실천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평등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예수의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여성의 창의력이나 지도력이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 교회라고 말한다.[118]결국은 예수의 삶, 죽음, 부활에서 보여진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의 확장을 위한 개혁이며, 주변화되고 소외된 이들이 좀 더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항상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인 것이다.[119]

강남순이 제시하는 해방적-개혁적 교회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실천적 요소들 중에서 탈성직자중심주의는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개신교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상담목회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 본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를 위계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에서 교회 사역을 나누어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로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결국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위계적

---

[117]강남순, *페미니즘과기독교*, 134.
[118]강남순, *페미니즘과기독교*, 138.
[119]강남순, *페미니즘과기독교*, 140-41.

문제 해소에서 남신도와 여신도 사이의 수직적 관계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다.[120] 해방적-개혁적 교회를 지향하는 이러한 실천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차별을 넘어 약자와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 목소리는 비로소 삶의 변화를 위한 첫 기반이 될 것이다.

[120] 강남순, *페미니즘과기독교*, 150.

Chapter Ⅵ

요약과 결론

어느 때보다도 상담적 돌봄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중대형교회들이 기독교 상담에 관심을 갖고 교인들을 위해 교회 내에서 상담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2000년대 와서는 더욱 활발해져서 교회 내에 상담부서 개설, 상담 세미나 개최, 상담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교인들을 위해 교회의 고유 돌봄에 더하여 상담목회가 교회 내에 자리 잡으며 활성화 되어 왔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교회 내 영혼을 보살피는 일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설립 의도와는 달리 일부 교회 내 상담소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외부 상담기관을 찾게 되거나 교회를 떠나는 원인들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 내 상담소 기피현상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회 내의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폭 넓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서 상담소가 치유와 선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교회 내 상담소 운영의 전반적 방향성은 이러한 목회상담의 선교적 사역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교회 내의 상담소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그 교회의 담임목사의 상담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참여가 요청된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는 교회의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으로 개설,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상담 교육을 받은 목회상담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상담소 역할의 다양화를 위해 첫째는 상담, 둘째는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담의 내용은 개인상담, 부부상담, 결혼예비상담, 가정상담, 집단상담 등 여러 가지로 상담이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전반에 짙게 드리운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주의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여성과 약자를 위한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이 요청된다.

전통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서와 신앙공동체의 역사에서 여성의 이야기는 제외되어 왔고, 여성은 단지 죄나 육적인 욕망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나치게 여성은 자기희생과 순종, 완전한 사랑 등 불가능한 이상만을 강요 받아 왔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 고유의 성향인 듯 합리화하는 전통 기독신학에 바탕을 둔 전통 목회상담의 논의는 페미니즘 입장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지배문화에서 소외되어온 유색인, 어린이, 노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누거가 주장하는 것처럼 페미니스트 목회상담은 상담을 통해 여성의 자기실현이나 여성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그 목적을 상담과정의 한 부분으로 교회와 문화변혁에 헌신하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결국 여성의 문제는 양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의 우리 교회 현장에서 그저 요원한 이야기로만 남지 않도록 더불어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와 담임목회자 그리고 목회상담자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목회상담은 다소 개인중심주의에 편중되어 개인의 내면의 문제 등에만 관심을 갖고 발전되어 온 경향이 있다.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문제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성 회복에 두고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해결과 건강한 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회상담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어떤 유형이 되었든지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도움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교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서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상호 공감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숙하고 헌신적인 교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좀 더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담을 중요시하는 목회상담분야가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실제 현장에서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논문은 교회 내의 상담소 역할의 활성화와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 이단과 사이비 문제,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목회상담적 섬김 등 그 영역을 점차 사회적 문제에 까지 확대하여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정당성과 동인을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Bibliography)

국내문헌과 학술논문

감리교 목회상담센터. *한국문화와 목회상담: 화강 이기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목회상담, 2003.

강남순. *페미니즘과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_______.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고미영. "이야기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In *한국가족치료학회* vol. 8 (2002), 111-36

_______. "여성들의 이야기: 그 실체와 가능성." In *기독교사상* vol. 445 (1996), 141-50.

김필진. "여성의 전인치유를 위한 페미니즘 목회상담," In *목회상담* vol.8 (2006), 63-90.

박근원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박근원교수 정년퇴임기념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박민서 and 오우성, *이야기 상담의 과정과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손운산. "상처 입은 한반도적 자아치유를 위한 상담목회(2)." In *기독교사상* vol. 470 (1998), 63-78

______. "전쟁 이야기에서 치유와 화해의 이야기로." In *기독교사상* vol. 498 (2000), 26-41.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유영권. "한국목회상담의 실천과 교육에 관한 분석." In *신학논단* vol. 26 (1999), 275-97.

______. *기독(목회)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이기춘.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상담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7.

______. *듣음의 신학: 상담신학의 이론과 실천.* 서울: 감신, 2002.

이선혜. "내러티브 접근의 가족치료사적 의의와 한국 가족치료 발전에 대한 함의: 고 마이클 화이트의 작업에 대한 재조명." In *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 16 (2008), 43-62.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6.

______. "아픔과 목회상담." In *기독교사상* vol. 303 (1983), 108-24.

정희성. "교회성장과 페미니즘 목회상담." In *목회와 상담* vol. 6 (2005), 193-224.

최상진, *문화심리학: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희망나눔, 2014.*

번역서

Brister, C. W. *The Promise of Counseling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Translated by 오성춘. 서울: 홍성사, 1986.

Clinebell, Howard J.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Translated by 박근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______.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현대목회상담.* Translated by 박근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Cres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질적연구 방법론,* Translated by 조흥식, 정선욱 and 김진숙. 서울: 학지사, 2010.

Dayringer, Richard.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관계중심목회상담,* Translated by 문희경.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Doehring, Carrie.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Postmodern Approach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근대적 접근법. Translated by 오오현 and 정호영. 서울: 학지사, 2012.

Gerkin, Charles V.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의 개론.* Translated by 유영권. 서울: 은성출판사, 2004.

______. *Living Human Documents 살아있는 인간 문서.* Translated by 안석모.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Holstein,James A. and Jaber F. Gubrium. *The Active Interview 적극 면담.* Translated by 이명선, 손행미, 정운숙 and 이봉숙. 서울: 군자출판사, 2005.

Lartey, Emmanuel Yartekwei. *In Living Color: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상호문화 목회상담.* Translated by 문희경. 서울: 대서, 2011.

McNamee, Sheila and Kenneth J. Gergen.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Translated by 김유숙. 서울: 학지사, 2004.

Neuger, Christie Cozad.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Translated by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_______. *The Arts Ministry Feminist- Womanist Approaches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성을위한 목회 사역.* Translated by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Nouwen, Henri. *The Wounded Healer상처 입은 치유자.* Translated by 최원준. 서울: 두란노, 2008.

______. *Intimacy 친밀함.*Transated by 윤종석. 서울: 두란노, 2001.

Pennebaker, James W. *Opening Up 털어놓기와 건강.* Translated by 김종한 and 박광배. 서울: 학지사, 1999.

Russel, Shona and Maggie Carey. *Narrative Therapy: Responding to Your Questions 이야기 치료: 궁금증의 문을 열다.* Translated by 최민수.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Seidman,Irving.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Translated by 박혜준 and 이승연. 서울: 학지사, 2009.

Tournier, Paul. *Secrets 비밀.* Translated by 소승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국외문헌

Clebsch, William and ChalesJae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Doehring, Carrie. *Taking Care: Monitoring Power Dynamics and Relational Boundaries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Gerkin, Charles V. *Widening the Horizons: Pastoral Response to a Fragmented Socie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Mortimer,R. C. *The Origins of Private Penance in the Western Church.* Oxford: Clarenden Press, 1939.

Rogers, Carl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White, Michael. "The Narrative Metaphor in Family Therapy: An Interview with Michael White (Chapter 17)." In *Family Therapy: Exploring the Field's Past, Present and Possible Futures. Ed.*,D. Denborough. Adelaide, South Australia: Dulwich Centre Publications, 2001.

부록

동의서

A. 주심교수 동의서

나 이경식(Kyungsig Samuel Lee)은 유정현의 연구 제안서 "교회 상담소 경험 연구를 통한 상담목회 발전 방안 모색"(상담소를 갖춘 대형교회 교인 중 외부 상담소 이용자 면담 분석을 통한 연구)를 살펴보았고, 나는 이 학생이 아래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이 연구를 지도하는데 동의합니다.

D.Min.

나는 이 제안서가 관례적인 학술적 연구와 일치하며 연구 참여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____
Faculty Member

____
Faculty Signature

____
Date

B. 면담동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유정현 목사입니다. 저는 면담 방법론을 논문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하여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상담목회 발전 방안 연구"(상담소를 갖춘 대형교회 교인 중 외부 상담소 이용자 면담분석을 통한 연구)란 주제로 교회 내 상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교인들의 교회 내의 상담소 기피현상을 조사하고 앞으로 교회 내의 상담소 개선방향과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상담목회에 발전적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논문 지도교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이경식(Kyungsig Samuel Lee) 박사이시며 교수님의 연락처는 1325 N. College Avenue, Claremont, CA 91711 E-mail: ooo@cst.edu입니다.

만약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되는 것이나 질문이 있으면 1차적으로 위 연락처를 통하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회장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 자료는 앞서 밝힌 대로 한국교회 상담목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동의 혹은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담에 동의하시면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되며, 이 내용은 제가 논문에 사용한 후에 모두 영구 파기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참여 하시게 되며, 면담 도중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면담 자체를 언제라도 중단

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 도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실 때에는 저에게 바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연구가 면담에 참여하시는 분께 직접적인 이득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발견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 교회 내 상담소의 좋은 점 혹은 개선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귀하와 나눈 이야기를 통하여 한국 교회 상담목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과정 중에 면담에 응하는 분의 이름과 관련 인적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되며 혹여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시간적, 환경적 어려움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럴 경우 즉시 중단하거나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면담은 제가 단독으로 실행하고 또한 녹음된 부분을 들을 것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교회나 신원이 확인될 만한 세부적인 내용은 변형되어 논문에 기재됩니다.

아래에 서명하심으로 녹음되는 면담에 응하신다는 내용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만족할 만한 응답을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동참하는데 동의하시면 이 문서의 복사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논문 제안서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2014

참가자의 이름: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2014

연구자의 이름: 유 정 현

연구 주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상담목회 발전 방안 연구

'약자의 목소리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회 상담소 운영 개선안'

C. 면담내용구성

상담과 교회 상담실의 본질에 대한 인식	상담과 상담 경험의 의미	-상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교회 상담소를 찾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상담소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었나요? -교회 상담(소)의 역할은 무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 상담소는 내게 어떤 의미였나요? -상담외의 요인에 대한 질문: 가족의 지원, 직업, 교육, 경제적 여건, 이전의 상담이나 교육받은 경험 등

	경험의 차별성	-나의 교회 상담소에서의 상담 경험 중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경험과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상담 과정 중에 느꼈던 느낌 중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상담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때 나의 생각(느낌)은 어떠했나요?
내담자의 교회 상담실 경험과 기피 이유는 무엇인가?	경험의 특징	-교회 상담실 경험 전후의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교회 상담소에서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상담 이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상담 과정 중에 저항이 일어난 적은 언제입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상담이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

	경험에 대한 직관	-교회 상담소에서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을 당시 생각(느낌)은 어떠했습니까?
	경험에 대한 대안	-교회 상담소에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외부 상담기관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해석의 내용	-교회 밖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상담 과정 중에 느꼈던 느낌 중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의 근원	-상담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상담 후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상담을 필요로 하던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상담자의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D. 한국목회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규정

3. 내담자와의 관계

본 회원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로 전문적인 도움이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 및 의뢰한다.

2. 내담자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표준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내담자가 상담으로부터 도움을 분명히 받는다면 판단이 섰을 경우에만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유지한다.

4. 내담자가 원하였거나 동의를 한 경우에라도 내담자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비밀 보장

본 회원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안녕을 존중하고 상담 과정을 통해 획득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 내담자에 대한 기록은 비밀 유지와 보안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한다.

2. 강의나 공개 발표시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

3. 윤리에 관한 협회의 내용, 자료, 조사 보고서 및 관련 기록 등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 자료를 법정에서 다른 회원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직의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상이 된다.